

난민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

서 문

I) 보편적 차원에서 난민의 지위는,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두가지 국제법문서는 국제연합 체제내에서 채택되었다. 본 편람을 재발간할 당시 110개국 이 협약 또는 의정서 또는 양 문서의 당사국이였다.

II) 이들 두개 국제법문서는, 이 문서에서 난민으로 정의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그가 난민인지에 관한 평가, 즉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거한 난민지위의 인정은, 그 영역에서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신청 당시 체재하는 체약국의 의무가 된다.

III)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는 체약국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여러 체약국에서 행하는 조치에 따라, 난민지위의 인정에 적용된다.

IV) 고등판무관 업무계획 집행위원회는 제28차 회기에서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대하여 "정부의 지침서로서,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편람의 발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본 편람 초판은 집행위원회의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1979년 9월 고등판무관 사무소 국제보호국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그 후 본 편람은 난민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공무원, 학자 및 법률가에게 배포되도록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발간되었다. 현재 본 편람은,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지리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선언의 세 부항목을 포함한, 국제난민법문서의 가입에 관한 최신 정보를 담고 있다.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CR/IP/4/Eng/REV.1 Reedited, Geneva, January 1992, UNHCR 1979

FOREWORD

I) Refugee status, on the universal level, is governed by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se two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have been adop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time of republishing this Handbook 110 states have become parties to the Convention or to the Protocol or to both instruments.

II) These two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re applicable to persons who are refugees as therein defined. The assessment as to who is a refugee, i.e.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is incumbent upon the Contracting State in whose territory the refugee applies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II) Both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provide for co-oper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and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his co-operation extends to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according to arrangements made in various Contracting States.

IV)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at its twenty-eighth session requested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to

V) 본 편람의 각 장은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규정된 난민의 정의의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설명은 1951년 협약이 1954년 4월 21일에 발효한 이래 약 25년동안 고등관무관 사무소에 의하여 축적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난민지위의 인정에 관한 각국의 실무가 고등관무관과 체약국의 관할기관간의 의견교환으로서 고려되고, 사반세기에 걸쳐 본 주제에 관하여 출판된 문헌을 고려해 넣었다. 본 편람은 실용적 지침으로서 마련된 것으로, 난민법에 관한 전문서는 아니며, 참고문헌 등에 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생략하였다.

VI) 난민지위인정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본 편람의 집필자는 주로 집행위원회가 이 분야에 관하여 정한 원칙에 따랐다. 물론 각국의 실무의 유용한 지식에도 의존하였다.

VII) 본 편람은 여러 체약국에서 난민지위인정에 관계되는 정부공무원의 지침서로 사용되도록 마련된 것이다. 본 편람이 또한 난민문제에 관계되는 모든 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유용하기를 희망한다.

국제연합 난민고등관무관 사무소

국제보호국장

미셸 무살리 (Michel Moussalli)

consider the possibility of issuing - for the guidance of Governments - a handbook relating to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The first edition of the Handbook was issued by my Division in September 1979 in response to this request by the Executive Committee. Since then the Handbook has been regularly reprinted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s of government officials, academics, and lawyers concerned with refugee problems. The present edition updates information concerning accessions to the international refugee instruments including details of declarations on the geographical applicability of the 1951 Convention and 1967 Protocol.

V) The segment of this Handbook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breaks down and explains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definition of refugee set out in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The explanations are based on the knowledge accumulated by the High Commissioner's Office over some 25 years,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1951 Convention on 21 April 1954. The practice of States is taken into account as are exchanges of views between the Office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Contracting States, and the literature devoted to the subject over the last quarter of a century. As the Handbook has been conceived as a practical guide and not as a treatise on refugee law, references to literature etc. have purposely been omitted.

서 언

"난민" 용어를 정의하는 국제문서

A. 초기 법문서 (1921-1946)

1. 20세기 초기에 난민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인도적 이유로 난민을 보호하고 원조하는데 대한 책임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2. 난민을 위한 국제적 행동양식은 국제연맹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난민을 돕기 위한 많은 국제협정이 채택되었다. 이들 법문서는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A (1)에서 언급되고 있다 (제32조 참조).

3. 이들 법문서의 정의는, 난민의 각 범주를 그들의 출신국, 그들이 떠났던 영역 및 종전의 본국에 의하여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관련되고 있다. 이같은 정의에 의하면 "범주에 의하여"라는 정의의 해석이 간단하고 누가 난민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4. 초기 법문서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들의 일부도 현재는 난민지위의 공식적 인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들은 이하 제2장에서 다룬다. 1951년 협약 이전의 국제문서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 "법정 난민"(statutory refugees)이라 한다.

VI) With respect to procedures for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the writers of the Handbook have been guided chiefly by the principles defined in this respect by the Executive Committee itself. Use has naturally also been made of the knowledge available concerning the practice of States.

VII) The Handbook is meant for the guidance of government officials concerned with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in the various Contracting States. It is hoped that it will also be of interest and useful to all those concerned with refugee problems.

Michel Moussalli

Director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NTRODUCTION

- International instruments defining the term "refugee"

A. Early instruments (1921-1946)

1. Earl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refugee problem became the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for humanitarian reasons, began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and assisting refugees.

2.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action on behalf of refugees was established by the League of Nations and led to the adoption of a number of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their benefit. These instruments are referred to in Article 1 A (1) of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ee paragraph 32 below).

B.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곧바로, 난민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난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법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난민상황에 관련된 임시협정을 채택하는 대신, 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의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법문서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은 1951년 7월 28일 국제연합 전권대사회에서 채택되었고, 1954년 4월 21일에 발효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1951년 협약"라 한다. (1951년 협약 본문은 부록 II

C.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6. 1951년 협약에 규정된 일반적 정의에 따라, 난민은 다음과 같은 자이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또한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 ..."

7. 1951년이란 기한의 설정은, 이 협약이 채택될 당시, 각국 정부의 의무를, 그 당시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난민상황에 대해서만, 또는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난민상황에 대해서만 제한하려 했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3. The definitions in these instruments relate each category of refugees to their national origin, to the territory that they left and to the lack of diplomatic protection by their former home country. With this type of definition "by categories" interpretation was simple and caused no great difficulty in ascertaining who was a refugee.

4. Although few persons covered by the terms of the early instruments are likely to request a formal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at the present time.. such cases could occasionally arise. They are dealt with below in Chapter II, A. Persons who meet the definition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prior to the 1951 Convention are usually referred to as "statutory refugees".

B.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5. So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as the refugee problem had not been solved, the need was felt for a new international instrument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refugees. Instead of ad hoc agreements adopted in relation to specific refugee situations, there was a call for an instrument containing a general definition of who was to be considered a refugee.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was adopted by a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f the United Nations on 28 July 1951, and entered into force

C.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6. According to the general definition contained in the 1951 Convention, a refugee is a person who:

8.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난민상황이 출현하였고, 1951년 협약규정을 그러한 새로운 난민에게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점차 느꼈다. 그 결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준비되었다. 국제연합 총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 의정서는 1967년 1월 31일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었고, 1967년 10월 4일에 발효하였다.

9.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는 1951년 협약의 실질적 규정을, 1951년이란 기한의 제약이 없이 협약에서 정의되는 난민에게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의정서는 이와 같이 협약과 관련은 있지만, 독립된 문서로서, 그 가입은 협약 당사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0. 이하 조항부터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1967년 의정서"라 한다. (의정서 원문은 부록 III에 게재.)

11. 편람 집필 당시, 78개국이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 또는 양 문서의 당사국이었다. (당사국 명단은 부록 IV에 게재.)

D.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의 주요 규정

12.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는 3가지 형태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i) 난민인(또한 난민이 아닌) 자 및 난민신분으로 있었다가 그 지위를 상실한 자의 기본 정의에 관한 조항.

이들 조항의 논의와 해석은 난민지위를 인정할 임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지침이 될 의도로 본 편람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As a result of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and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 is outside his country of nationality...”

7. The 1951 dateline originated in the wish of Governments, at the time the Convention was adopted, to limit their obligations to refugee situations that were known to exist at that time, or to those which might subsequently arise from events that had already occurred.¹

8.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the emergence of new refugee situations, the need was increasingly felt to make the provisions of the 1951 Convention applicable to such new refugees. As a result, a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was prepared. After consider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opened for accession on 31 January 1967 and entered into force on 4 October 1967.

9. By accession to the 1967 Protocol, States undertake to apply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1951 Convention to refugees as defined in the Convention, but without the 1951 dateline. Although related to the Convention in this way, the Protocol is an independent instrument, accession to which is not limited to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21 April 1954. In the following paragraphs it is referred to as “the 1951 Convention”. (The text of the 1951 Convention will be found in Annex II.)

(ii) 난민의 법적 지위 및 피난국에서의 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이들 조항은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난민지위인정이 실제로 당해 개인 또는 관련 가족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민지위인정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이 조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iii) 행정상 및 외교상 견지에서 이들 법문서의 이행에 관한 기타 조항.

1951년 협약 제35조 및 1967년 의정서 제2조는 체약국에게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 사무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문서 조항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무소에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0. In the following paragraphs,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s referred to as “the 1967 Protocol”. (The text of the Protocol will be found in Annex III.)

11. At the time of writing, 78 States are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or to the 1967 Protocol or to both instruments. (A list of the States parties will be found in Annex IV.)

D. Main provisions of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12.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contain three types of provisions:

(i) Provisions giving the basic definition of who is (and who is not) a refugee and who, having been a refugee, has ceased to be one. The discus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se provisions constitute the main body of the present Handbook, intended for the guidance of those whose task it is to determine refugee status.

(ii) Provisions that define the legal status of refugees and their rights and duties in their country of refuge. Although these provisions have no influence on the process of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the authority entrusted with this process should be aware of them, for its decision may indeed have far-reaching effects for the individual or family concerned.

(iii) Other provisions deal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truments from the administrative and diplomatic standpoint. Article 35 of the 1951 Convention and Article 11 of the 1967 Protocol contain an undertaking by

E. 국제연합 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13. 상기 A에서 C에 언급된 문서는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를 정의하고 있고, 계약국에 대하여 그 영역 내에서 난민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UNHCR")가 1951년 1월 1일자로 설립되었다. 195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428 (V)에 부속서로서 이 사무소 규정이 첨부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의 후원하에서 이 사무소의 권한에 속하는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는다.

15. 이 규정은 고등판무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자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의는 1951년 협약에 포함된 정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로 인하여, 고등판무관은 시간적 제한 또는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고 난민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16. UNHCR규정의 기준에 부합되는 자는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 내에 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양 문서중 어느 것에 의하여 그가 체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등판무관이 제공하는 국제연합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한 난민은 고등판무관이 위임받은 범위내에 속하는 자로서, 통상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라 한다.

Contracting States to co-operate with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in particular, to facilitate its duty of supervis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se instruments.

E. Statut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3. The instruments described above under A-C define the persons who are to be considered refugees and require the parties to accord a certain status to refugee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14. Pursuant to a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was established as of 1 January 1951. The Statute of the Office is annexed to Resolution 428 (V),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4 December 1950. According to the Statute, the High Commissioner is called upon--inter alia--to provide international protec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to refugees falling within the competence of his Office.

15. The Statute contains definitions of those persons to whom the High Commissioner's competence extends, which are very close to, though not identical with, the definition contained in the 1951 Convention. By virtue of these definitions the High Commissioner is competent for refugees irrespective of any dateline² or geographic limitation.³

17. 전술한 내용에 따라, 일정한 자는 위임난민과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상의 난민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는 양 문서 어느 것에 의하여도 구속을 받지 않은 국가에 체재하고 있을 수 있고, 또는 시간적 제한 혹은 지리적 제한의 적용을 받아 "협약난민"(Convention-refugee)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는 여전히 고등관무관 사무소 규정에 따라 고등관무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18. 상술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428 (V) 및 고등관무관 사무소 규정은, 난민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각국 정부와 고등관무관 사무소간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고등관무관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지명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비준을 촉진하고, 이들 협약의 적용을 감독할 의무를 수행한다.

19. 그러한 협력은, 고등관무관의 감독임무와 결부되어,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고등관무관의 기본적인 관심사의 기초가 되고 있다. 고등관무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각국 정부가 설정하는 난민지위의 인정절차중에 다양하게 반영된다.

16. Thus, a person who meets the criteria of the UNHCR Statute qualifies for the protection of the United Nations provided by the High Commissioner,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he is in a country that is a party to the 1951 Convention or the 1967 Protocol or whether or not he has been recognized by his host country as a refugee under either of these instruments. Such refugees, being within the High Commissioner's mandate, are usually referred to as "mandate refugees".

17. From the foregoing, it will be seen that a person can simultaneously be both a mandate refugee and a refugee under the 1951 Convention or the 1967 Protocol. He may, however, be in a country that is not bound by either of these instruments, or he may be excluded from recognition as a Convention refugee by the application of the dateline or the geographic terms of the Statute.

18. The above mentioned Resolution 428 (V) and the Statute of the High Commissioner's Office call for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the High Commissioner's Office in dealing with refugee problems. The High Commissioner is designated as the authority charged with providing inter-national protection to refugees, and is required inter alia to promote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to supervise their application.

F. 난민에 관한 지역적 법문서

20. 1951년 협약, 1967년 의정서 및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외에도, 난민에 관한 많은 지역적 협정, 협약 및 기타 문서가 있다. 이들 지역적 문서는 피난처의 제공, 여행증명서 및 여행편의 등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어떤 문서는 "난민"이란 용어, 또는 비호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21. 남미에서는, 외교적 비호 및 영토적 비호 문제가 국제형사법에 관한 조약(1889년 몬테비데오),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정(1911년 카라카스), 비호에 관한 협약(1928년 아바나), 정치적 비호에 관한 협약(1933년 몬테비데오), 외교적 비호에 관한 협약(1954년 카라카스), 및 영토적 비호에 관한 협약(1954년 카라카스)을 포함한 많은 지역적 법문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2. 최근의 지역적 법문서로는 1969년 9월 10일 아프리카단결기구의 국가 및 정부의 정상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난민문제의 특별한 양상에 관한 협약을 들 수 있다.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2개 부분으로 구성된 "난민"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은 1967년 의정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즉, 시간적 제한 또는 지리적 제한이 생략된 형태의 1951년 협약상의 정의). 두 번째 부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난민"용어를 적용한다. 즉, "외부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 또는 출신국 혹은 국적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으로 인하여, 출신국 또는 국적국 밖에 다른장소에서 피난처를 구하기 위하여 상주지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모든 자".

23. 본 편람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두 개 국제법문서 즉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하의 난민지위의 인정만을 취급한다.

19. Such co-operation, combined with his supervisory function, forms the basis for the High Commissioner's fundamental interest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The part played by the High Commissioner is reflected, to varying degrees, in the procedures for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established by a number of Governments.

F. Reg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refugees

20. In addition to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and the Statute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here are a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conventions and other instruments relating to refugees, particularly in Africa, the Americas and Europe. These regional instruments deal with such matters as the granting of asylum, travel documents and travel facilities, etc. Some also contain a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or of persons entitled to asylum.

21. In Latin America, the problem of diplomatic and territorial asylum is dealt with in a number of regional instruments including the Treaty on International Penal Law, (Montevideo, 1889); the Agreement on Extradition, (Caracas, 1911); the Convention on Asylum, (Havana, 1928); the Convention on Political Asylum, (Montevideo, 1933); the Convention on Diplomatic Asylum, (Caracas, 1954); and the Convention on Territorial Asylum, 22. A more recent regional instrument is the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adopted by the Assembl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Organization of African

G. 비호 및 난민의 처우

24. 본 편람은 난민지위의 인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 예컨대 난민에 대하여 비호를 부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후 난민으로서의 법적 처우는 취급하지 않는다.

25. 전권대사회의의 최종문서와 1951년 협약 전문에는 비호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에는 비호의 부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등판무관은, 1948년 12월 20일과 1967년 12월 14일에 각각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및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의 정신에 따라 항상 관대한 비호정책을 호소하여 왔다.

26. 난민에 관한 각국 영역 내에서의 처우는,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주요 조항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2절 (ii) 참조). 더욱이 1951년 협약을 채택한 전권대사회의의 최종문서에 포함된 권고 E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회의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은 합의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의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국가는 그 영역 내에 난민으로서 체재하고 있으면서 협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가능한 한 협약이 규정하는 대우를 부여함에 있어서 협약에 의한 지도를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한다.

27. 이 권고에 의하여 "난민"용어의 정의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각국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Unity on 10 September 1969. This Convention contains a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consisting of two parts: the first part is identical with the definition in the 1967 Protocol (i.e. the definition in the 1951 Convention without the dateline or geographic limitation). The second part applies the term "refugee" to: "every person who, owing to external aggression, occupation, foreign domination or events seriously disturbing public order in either part or the whole of his country of origin or nationality, is compelled to leave his place of habitual residence in order to seek refuge in another place outside his country of origin or nationality".

23. The present Handbook deals only with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under the two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universal scope: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G. Asylum and the treatment of refugees

24. The Handbook does not deal with questions closely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e.g. the granting of asylum to refugees or the legal treatment of refugees after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such.

25. Although there are references to asylum in the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as well as in the Preamble to the Convention, the granting of asylum is not dealt with in the 1951 Convention or the 1967 Protocol. The High Commissioner has always pleaded for a generous asylum policy in the spiri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1 부 난민지위 인정기준

제 1 장 일 반 원 칙

28. 1951년 협약의 난민정의에 포함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는 협약상 난민이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그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발생한다. 따라서 난민으로서의 지위의 인정은 그를 난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으로서 선언하는 것이다. 그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29. 난민지위의 인정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제 1단계는 사안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단계는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난민 정의가 이렇게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30. 1951년 협약상 난민정의의 조항은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난민인정조항"(inclusion clause), "적용정지조항"(cessation clause) 및 "적용배제조항"(exclusion clause)으로 되어 있다.

31. 난민인정조항은 그가 난민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난민지위의 인정을 위하여 위 their application. 한 적극적인 기본조건이 된다. 소위 적용정지조항과 적용배제조항은 소극적 의미가 있다. 전자는 난민이 난민자격이 정지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후자는 난민인정조항의 적극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이지만 1951년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and the 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0 December 1948 and on 14 December 1967 respectively.

26. With respect to the treatment within the territory of States, this is regulated as regards refugees by the main provisions of the 1951 Convention and 1967 Protocol (see paragraph 12 (ii) above). Furthermore, attention should be drawn to Recommendation E contained in the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which adopted the 1951 Convention:

“The Conference

Expresses the hope that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will have value as an example exceeding its contractual scope and that all nations will be guided by it in granting so far as possible to persons in their territory as refugees and who would not be covered by the terms of the Convention, the treatment for which it provides.”

27. This recommendation enables States to solve such problems as may arise with regard to persons who are not regarded as fully satisfying the criteria of the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PART ONE –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CHAPTER I – GENERAL PRINCIPLES

28. A person is a refugee within the meaning of the 1951 Convention as soon as he fulfils the criteria contained in the definition. This would necessarily occur prior to the time at which his refugee

제 2 장 난 민 인 정 조 항

A. 정 의

(1) 법정난민

32. 난민 1951년 협약 제1조 A (1)은 법정난민, 즉, 협약에 앞서 채택된 국제법문서의 조항하에서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난민"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협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 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의 활동기간동안 취한 난민 부적격성에 대한 결정은 이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된 난민의 지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3. 위에 열거된 내용은, 과거를 연결시키고, 여러 초기시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어 온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제4절 참조), 이들 법문서는 이제는 그 의미를 많이 상실하였고, 여기서 이들 문서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러나, 이들 문서의 조건에 따라 난민으로 간주된 자는 자동적으로 1951년 협약상의 난민이 된다. 따라서 소위 "난센 여권"(Nansen Passport) 또는 국제난민기구에서 발급된 "난민자격 증명서"의 소지인은, 적용정지 조항이 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또는 그가 적용배제조항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1951년 협약하에서도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은, 법정난민의 생존자녀에게도 적용된다.

status is formally determined. Recognition of his refugee status does not therefore make him a refugee but declares him to be one. He does not become a refugee because of recognition, but is recognized because he is a refugee.

29.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is a process which takes place in two stages. Firstly, it is necessary to ascertain the relevant facts of the case. Secondly, the definitions in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have to be applied to the facts thus ascertained.

30. The provisions of the 1951 Convention defining who is a refugee consist of three parts, which have been termed respectively "inclusion", "cessation" and "exclusion" clauses.

31. The inclusion clauses define the criteria that a person must satisfy in order to be a refugee. They form the positive basis upon which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is made. The so-called cessation and exclusion clauses have a negative significance; the former indicate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refugee ceases to be a refugee and the latter enumerate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person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1951 Convention although meeting the positive criteria of the inclusion clauses.

CHAPTER II – INCLUSION CLAUSES

A. Definitions

(1) Statutory Refugees

32. Article 1 A (1) of the 1951 Convention deals with statutory refugees, i.e. persons considered to be refugees under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preceding the Convention.

(2) 1951년 협약상의 일반적 정의

34. 1951년 협약 제1조 A (2)에 따라 "난민"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 일반적 정의는 아래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This provision states that: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refugee'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1) Has been considered a refugee under the Arrangements of 12 May 1926 and 30 June 1928 or under the Conventions of 28 October 1933 and 10 February 1938, the Protocol of 14 September 1939 or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Decisions of non-eligibility taken by the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during the period of its activities shall not prevent the status of refugees being accorded to persons who fulfil the conditions of paragraph 2 of this section."

33. The above enumeration is given in order to provide a link with the past and to ensure the continuity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who became the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various earlier periods. As already indicated (para. 4 above), these instruments have by now lost much of their significance, and a discussion of them here would be of little practical value. However, a person who has been considered a refugee under the terms of any of these instruments is automatically a refugee under the 1951 Convention. Thus, a holder of a so-called "Nansen Passport"⁴ or a "Certificate of Eligibility" issued by the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must be considered a refugee under the 1951 Convention unless one of the cessation clauses has become applicable to his case or he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one of the exclusion clauses. This also applies to a surviving child of a statutory

B. 용어 해석

(1)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35. 1951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한 연유에 대해서는 서론 제7조에서 설명하였다. 1967년 의정서의 채택 결과 이 기한의 실제적 의의는 많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사건"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1951년 협약 당사국이면서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소수의 국가에 있어서만 관심의 대상이 된다.

36. "사건"이라는 단어는 1951년 협약에서는 정의되고 있지 않으나, "1951년 이전의 변화의 사후적 결과인 조직적인 박해계획 뿐 아니라, 영토적 또는 심각한 정치적 변화를 포함한 중요한 성격을 가진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951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은, 그가 난민이 되게 된 "사건"의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며, 그가 난민이 된 일자 또한 그가 본국을 떠난 일자의 문제가 아니다. 박해의 공포가 1951년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건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 1951년 이후 발생한 사후적 결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난민은 그 기한을 전후로 본국을 떠났을 수 있었다.

(2)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well 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a) 일반적 분석

37.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문구는 난민정의의 핵심이다. 이는 난민의 성격의 주요 요소에 대한 협약 초안자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종전의 난민정의(즉,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특정한 출신의 자)에 대신하여 관련 동기로서 "공포"의 일반적인 개념을 도입하였다. 공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협약의 난민정의는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으로서의 지

refugee.

(2) General definition in the 1951 Convention

34. According to Article 1 A (2) of the 1951 Convention the term "refugee"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As a result of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and owing to well 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This general definition is discussed in detail below.

B. Interpretation of terms

(1)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35. The origin of this 1951 dateline is explained in paragraph 7 of the Introduction. As a result of the 1967 Protocol this dateline has lost much of its practical significance. An interpretation of the word "events" is therefore of interest only in the small number of States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that are not also party to the 1967 Protocol.⁵

36. The word "events" is not defined in the 1951 Convention, but was understood to mean "happenings of major importance involving territorial or profound political changes as well as systematic programmes of persecution which are after-effects of earlier changes".⁶ The dateline refers to "events" as a result of

위의 인정에는 일차적으로 그의 출신국의 지배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보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평가가 더 요구된다.

38. 심리상태의 주관적 조건인 공포라는 요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첨가된다. 이는 난민지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당해자의 심리의 걱정적인 상태 뿐아니라 그러한 심리상태가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용어는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39. 모험을 위하여 또는 단순히 세상을 알기 위하여 집을 나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자신의 집이나 고국을 버리는 경우는 없다. 불가피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난민으로 정의되기 위하여는 한가지 동기가 필요하다. 특정한 동기를 명시함으로써 즉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기타의 탈출이유는 협약상의 난민정의와는 관련이 없게 된다. 기아 또는 자연적 재난의 피해자와 같은 자는 소정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난민인정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동기들도 난민지위의 인정과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신청인의 사정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which, and not to the date on which, a person becomes a refugee, not does it apply to the date on which he left his country. A refugee may have left his country before or after the datelines, provided that his fear of persecution is due to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e dateline or to after-effects occurring at a later date as a result of such events.⁷

(2) "well 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a) General analysis

37. The phrase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is the key phrase of the definition. It reflects the views of its authors as to the main elements of refugee character. It replaces the earlier method of defining refugees by categories (i.e. persons of a certain origin not enjoying the protection of their country) by the general concept of "fear" for a relevant motive. Since fear is subjective, the definition involves a subjective element in the person applying for recognition as a refuge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will therefore primarily require an evaluation of the applicant's statements rather than a judgement on the situation prevailing in his country of origin.

38. To the element of fear--a state of mind and a subjective condition--is added the qualification "well-founded". This implies that it is not only the frame of mind of the person concerned that determines his refugee status, but that this frame of mind must be supported by an objective situation. The term "well-founded fear" therefore contains a subjective and an objective element, and in determining whether well-founded fear

40. 주관적 요소의 평가는 신청인의 인성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개인의 심리적 반응은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강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무시당하는 경우 그의 삶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자는 그러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자는 충동적으로 탈출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다른 자는 그의 출발을 신중히 계획할 수 있다.

41. 협약상의 난민정의는 주관적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는 중요성 때문에, 기록에 의한 사실로서 사안이 충분히 명백하지 않은 경우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절대 필요하다. 신청인의 개인적 배경 및 가족배경, 특정의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집단의 구성원 신분, 자신이 처해 있는 사정에 대한 본인의 해석 및 개인적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그가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된 주요 동기가 공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포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과장된 공포는, 사안의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심리상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42. 객관적 요소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난민지위의 인정을 요청받는 관할기관은, 신청인의 출신국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의무는 없다. 신청인의 진술은 추상적으로 고려될 수 없고, 관련된 배후사정의 문맥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신청인의 출신국의 상황을 아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신청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경우, 그가 출신국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협약상의 난민정의에 언급된 이유로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

exists, both elemen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39. It may be assumed that, unless he seeks adventure or just wishes to see the world, a person would not normally abandon his home and country without some compelling reason. There may be many reasons that are compelling and understandable, but only one motive has been singled out to denote a refugee. The expression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for the reasons stated--by indicating a specific motive automatically makes all other reasons for escape irrelevant to the definition. It rules out such persons as victims of famine or natural disaster, unless they also have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for one of the reasons stated. Such other motives may not, however, be altogether irrelevant to the process of determining refugee status, since all the circumstance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applicant's case.

40. An evaluation of the subjective element is inseparable from an assessment of the personality of the applicant, since psychological reactions of different individuals may not be the same in identical conditions. One person may have strong political or religious convictions, the disregard of which would make his life intolerable; another may have no such strong convictions. One person may make an impulsive decision to escape; another may carefully plan his departure.

41. Due to the importance that the definition attaches to the subjective element, an assessment of credibility is indispensable where the case is not

이 되고, 또는 그가 출신국으로 돌아간다면 동일한 이유로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임을 신청인이 합리적인 정도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판단되어야 한다.

43. 이러한 판단은 반드시 신청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친구, 가족, 또는 동일한 인종 또는 사회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일어난 일은, 조만간 신청인 역시 박해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그의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출신국의 법, 특히 법적용의 방법도 관련이 있다. 한편 각 개인이 상황은 자신의 진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잘 알려진 인물의 경우는 무명의 인물의 경우보다 박해의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 예컨대 그의 성격, 경력, 영향력, 재산 또는 정직성에 의하여, 신청인이 우려하고 있는 박해의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sufficiently clear from the facts on record.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personal and family background of the applicant, his membership of a particular racial, religious, national, social or political group, his own interpretation of his situation, and his personal experiences--in other words, everything that may serve to indicate that the predominant motive for his application is fear. Fear must be reasonable. Exaggerated fear, however, may be well-founded if, in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such a state of mind can be regarded as justified.

42. As regards the objective elemen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statements made by the applicant. The competent authorities that are called upon to determine refugee status are not required to pass judgement on conditions in the applicant's country of origin. The applicant's statements cannot, however, be considered in the abstract, and must be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relevant background situation. A knowledge of conditions in the applicant's country of origin--while not a primary objective--is an important element in assessing the applicant's credibility. In general, the applicant's fear should be considered well-founded if he can establish, to a reasonable degree, that his continued stay in his country of origin has become intolerable to him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definition, or would for the same reasons be intolerable if he returned there.

43. These considerations need not necessarily be based on the applicant's own personal experience. What, for example, happened to his friends and

44. 난민지위는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인정되어야 하나, 집단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황하에서 전체 집단이 본국으로부터 강제로 추방당하여 유랑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원조를 제공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며, 집단 각 구성원에게 난민지위를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집단인정"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것에 의하여 집단의 각 개인은 우선 채택된 증거를 통하여 - 예컨대 반증이 없는 한 - 난민으로 간주된다.

45. 앞 조에 언급된 상황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는 상당한 이유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신청인은 1951년 협약에 열거된 이유로 인하여 이미 박해의 피해자라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 것이다. 한편 "공포"라는 용어는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는 자 뿐 아니라, 박해의 위협이 있는 상황을 피하기를 원하는 자 모두를 언급하는 것이다.

46.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 또는 "박해"라는 표현은 보통 난민의 일반용어와는 통상 관계없는 생소한 것이다. 난민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는 난민이란 표현 중에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미로 실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에 호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난민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명백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리적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정치적 용어로서 표현할 수 없다.

relatives and other members of the same racial or social group may well show that his fear that sooner or later he also will become a victim of persecution is well-founded. The laws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particularly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applied, will be relevant. The situation of each person must, however, be assessed on its own merits. In the case of a well-known personality, the possibility of persecution may be greater than in the case of a person in obscurity. All these factors, e.g. a person's character, his background, his influence, his wealth or his outspokenness, ma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his fear of persecution is "well-founded".

44. While refugee status must normally be determined on an individual basis, situations have also arisen in which entire groups have been displaced under circumstances indicating that members of the group could be considered individually as refugees. In such situations the need to provide assistance is often extremely urgent and it may not be possible for purely practical reasons to carry out an individual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for each member of the group. Recourse has therefore been had to so-called "group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whereby each member of the group is regarded prima facie (i.e. in the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as a refugee.

45. Apart from the situations of the typ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 applicant for refugee status must normally show good reason why he individually fears persecution. It may be assumed that a person has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if he has already been the

47.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형적인 확인은 신청인이 국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그 자체는 여권발급기관이 그 소지자를 박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반대로 박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국가기관과 관계하여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탈출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합법적인 출국을 선택하였다.

48. 따라서 여권의 소지는 반드시 소지인의 측면에서 충성의 증거로서, 또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증거로서 고려될 수 없다. 출신국 입장에서 이롭지 않는 자의 출국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권이 발급될 수 있고, 또한 여권이 비밀리에 취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효한 여권의 단순한 소지는 난민지위의 인정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49. 한편 신청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그가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그의 주장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난민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난민은 통상 자신의 여권을 계속 보유해서는 안된다.

50. 그러나 난민으로서의 지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가 자신의 여권을 보유할 있거나, 또는 특별조치하에서 출신국의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그러한 특별조치가 여권의 소지인이 사전의 허가없이 자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러한 조치는 난민지위와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

the victim of persecution for one of the reasons enumerated in the 1951 Convention. However, the word "fear" refers not only to persons who have actually been persecuted, but also to those who wish to avoid a situation entailing the risk of persecution.

46. The expressions "fear of persecution" or even "persecution" are usually foreign to a refugee's normal vocabulary. A refugee will indeed only rarely invoke "fear of persecution" in these terms, though it will often be implicit in his story. Again, while a refugee may have very definite opinions for which he has had to suffer, he may not, for psychological reasons, be able to describe his experiences and situation in political terms.

47. A typical test of the well-foundedness of fear will arise when an applicant is in possession of a valid national passport. It has sometimes been claimed that possession of a passport signifies that the issuing authorities do not intend to persecute the holder, for otherwise they would not have issued a passport to him. Though this may be true in some cases, many persons have used a legal exit from their country as the only means of escape without ever having revealed their political opinions, a knowledge of which might place them in a dangerous situation vis-à-vis the authorities.

48. Possession of a passport cannot therefore always be considered as evidence of loyalty on the part of the holder, or as an indication of the absence of fear. A passport may even be issued to a person who is undesired in his country of origin, with the sole purpose of

(b) 박 해

51.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박해"의 정의는 없으며, 그러한 정의를 확립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1951년 협약 제33조로부터,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란 것을 이유로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통상 박해가 된다는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른 인권의 중대한 침해도 동일한 이유로 박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52. 다른 편견적 행위 또는 위협이 박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앞서 언급된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여,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박해의 공포의 주관적인 성격은 당해자의 의견과 감정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러한 의견과 감정에 비추어 보아 그에게 대한 실제적 조치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조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의 심리적 상태 및 각 사안의 상황에 따른 변수로 인하여 박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53. 더욱이 신청인은 그 자체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조치에 의한 대우의 차별에 구속당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다른 불리한 요인(예컨대 출신국의 일반적인 불안정한 분위기)과 결합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관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신청인의 심리상태에, "누적된 근거"(cumulative grounds)에 따라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근거가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유효한 주장이 될 수 있다고는 일반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난민지위의 인정은, 특정의 지리적, 역사적 및 민족적 배경을 포함하여, 반드시 모든 관련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securing his departure, and there may also be cases where a passport has been obtained surreptitiously. In conclusion, therefore, the mere possession of a valid national passport is no bar to refugee status.

49. If, on the other hand, an applicant, without good reason, insists on retaining a valid passport of a country of whose protection he is allegedly unwilling to avail himself, this may cast doubt on the validity of his claim to have "well-founded fear". Once recognized, a refugee should not normally retain his national passport.

50. There may, however, be exceptional situations in which a person fulfilling the criteria of refugee status may retain his national passport—or be issued with a new one by the authorities of his country of origin under special arrangements. Particularly where such arrangements do not imply that the holder of the national passport is free to return to his country without prior permission, they may not be incompatible with refugee status.

(b) Persecution

51. There is no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 of "persecution", and various attempts to formulate such a definition have met with little success. From Article 33 of the 1951 Convention, it may be inferred that a threat to life or freedom on account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political opinion or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is always persecution. Other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for the same reasons--would also constitute persecution.

(c) 차별

54. 다양한 집단의 대우상 차이는, 큰 작든 실제로 많은 사회에서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의 결과로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자가 반드시 박해의 피해자는 아니다. 차별이 박해에 해당되는 특성의 경우가 있다. 차별적 조치가 당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편견적 성격의 결과를 이끄는 경우에 그러하다. 예컨대, 생계를 유지할 권리, 자신의 종교를 신봉할 권리, 또는 일반적으로 유용한 교육시설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은 박해에 해당된다.

55. 차별조치 그 자체 중대한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당해자의 마음에 자신 장래 생존에 관하여 위기감과 불안감을 준다면, 이들 조치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상당한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차별조치 자체가 박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아 결정하여야 한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형태의 많은 차별적 조치의 피해자가 되었고, 또한 누적된 관련요소가 있는 경우, 더욱 설득력 있게 된다.

52. Whether other prejudicial actions or threats would amount to persecution will depend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including the subjective element to which reference has been made in the preceding para. graphs. The subjective character of fear of persecution requires an evaluation of the opinions and feelings of the person concerned. It is also in the light of such opinions and feelings that any actual or anticipated measures against him must necessarily be viewed. Due to variations in the psychological make-up of individuals and i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interpretations of what amounts to persecution are bound to vary.

53. In addition, an applicant may have been subjected to various measures not in themselves amounting to persecution (e.g. discrimination in different forms), in some cases combined with other adverse factors (e.g. general atmosphere of insecurity in the country of origin). In such situations, the various elements involved may, if taken together, produce an effect on the mind of the applicant that can reasonably justify a claim to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on "cumulative grounds". Needless to say, it is not possible to lay down a general rule as to what cumulative reasons can give rise to a valid claim to refugee status. This will necessarily depend on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particular geographical, historical and ethnological context.

(c) Discrimination

54. Differences in the treatment of various groups do indeed exist to a greater or lesser extent in many societies. Persons who receive less favourable treatment as

(d) 형 벌

56. 박해는 보통범죄에 대한 형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소되고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한 자는 통상 난민이 아니다. 난민은 부정의의 피해자(또는 잠재적 피해자)이지 정의로부터의 도피자는 아니다.

57. 그러나 위와 같은 구별은 경우에 따라서 모호할 수 있다. 첫째, 보통범죄를 저질렀던 자가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협약상의 난민정의의 의미내에서의 박해에 해당될 수 있다. 더욱이 협약상 정의에 언급된 이유로 인한 형사소추(예컨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불법적인" 종교교육에 관한 형사소추)는 그 자체가 박해에 해당될 수 있다.

58. 둘째, 보통범죄를 저질렀던 자가 기소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외에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자는 난민이다. 이 경우 문제된 범죄가, 신청자를 적용배제조항의 해당 범위내에 속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성격의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59. 기소가 박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관련국의 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이 수락된 인권기준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 자체가 아니고 법의 적용이 차별적인 경우가 더욱 많다. 예컨대 "공공질서"에 대한 범죄에 관한 (예컨대 유인물의 배포와 같은 범죄) 기소는 그 발행물의 정치적 내용을 근거로 한 개인에 대한 박해의 수단이 될 수 있다.

a result of such differences are not necessarily victims of persecution. It is only in certain circumstances that discrimination will amount to persecution. This would be so if measures of discrimination lead to consequences of a substantially prejudicial nature for the person concerned, e.g. serious restrictions on his right to earn his livelihood, his right to practise his religion, or his access to normally available educational facilities.

55. Where measures of discrimination are, in themselves, not of a serious character, they may nevertheless give rise to a reasonable fear of persecution if they produce, in the mind of the person concerned, a feeling of apprehension and insecurity as regards his future existence. Whether or not such measures of discrimination in themselves amount to persecution must be determin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A claim to fear of persecution will of course be stronger where a person has been the victim of a number of discriminatory measures of this type and where there is thus a cumulative element involved.⁸

(d) Punishment

56. Persecution must be distinguished from punishment for a common law offence. Persons fleeing from prosecution or punishment for such an offence are not normally refugees. It should be recalled that a refugee is a victim--or potential victim--of injustice, not a fugitive from justice.

57. The above distinction may, however, occasionally be obscured. In the first place, a person guilty of a common law offence may be liable to excessive punishment, which may amount to

60. 그러한 경우 타국의 법을 평가함에 있어서 명백히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자국의 법을 판단척도로 사용함으로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더욱이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법문서,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고 1951년 협약의 당사국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법문서인, 특히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들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e) 출신국 밖에서의 불법출국 또는 불법체재의 결과

61. 일정 국가의 법은 불법출국을 하거나 또는 허가없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내국민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 부과한다. 불법출국 또는 허가받지 않은 해외에서의 체재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가 본국을 떠나거나 또는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동기가 1951년 협약 제1조 A (2)에서 열거하고 이유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될 수 있다면, 그러한 자를 난민으로 인정함이 정당화된다.

persecu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definition. Moreover, penal prosecution for a reason mentioned in the definition (for example, in respect of “illegal” religious instruction given to a child) may in itself amount to persecution.

58. Secondly, there may be cases in which a person, besides fearing prosecution or punishment for a common law crime, may also have “well founded fear of persecution”. In such cases the person concerned is a refugee. It may, however, be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crime in question is not of such a serious character as to bring the applicant within the scope of one of the exclusion clauses.⁹

59.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prosecution amounts to persecution,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refer to the laws of the country concerned, for it is possible for a law not to be in conformity with accepted human rights standards. More often, however, it may not be the law but its application that is discriminatory. Prosecution for an offence against “public order”, e.g. for distribution of pamphlets, could for example be a vehicle for the persecution of the individual on the grounds of the political content of the publication.

60. In such cases, due to the obvious difficulty involved in evaluating the laws of another country, national authorities may frequently have to take decisions by using their own national legislation as a yardstick. Moreover, recourse may usefully be had to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f) 난민과 구별되는 경제적 이주민

62. 이주민은 협약상 난민정의에 포함된 것 이외의 이유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본국을 떠나는 자이다. 그러한 자는 변화 또는 모험을 구하고, 또는 가정적 혹은 개인적 성격의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주할 수 있다. 전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이주한다면, 그는 경제적 이주민이지 난민이 아니다.

63. 그러나 경제적 이주민과 난민의 구분은, 신청인의 출신국의 경제적 조치와 정치적 조치의 구분이 늘 명료하지 않은 것과 같이 때로는 분명하지 않다. 개인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조치의 배후에는 특정 집단을 향하는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목적 또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조치가 인구의 특정 부분의 경제적 존립을 파괴하는 경우 (예컨대 특정의 민족집단 또는 종교집단에게 교역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또는 차별적이거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국가를 떠난 난민될 수 있다.

64. 동일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제적 조치(예컨대 차별없이 전 국민에 적용되는 조치)에 의한 피해자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사안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경제적 조치에 대한 반대는 그 자체로 난민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 한편으로는, 언뜻 보기에 기본적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한 출국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정치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고, 경제적 조치자체에 반대하기 보다는 그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의한 것일 수 있다.

which contain binding commitments for the States parties and are instruments to which many States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have acceded.

(e) Consequences of unlawful departure or unauthorized stay outside country of origin

61. The legislation of certain States imposes severe penalties on nationals who depart from the country in an unlawful manner or remain abroad without authorization. Where there is reason severe penalties his recognition as a refugee will be justified if it can be shown that his motives for leaving or remaining outside the country are related to the reasons enumerated in Article 1 A (2) of the 1951 Convention (see paragraph 66 below).

(f) Economic migrants distinguished from refugees

62. A migrant is a person who,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contained in the definition, voluntarily leaves his country in order to take up residence elsewhere. He may be moved by the desire for change or adventure, or by family or other reasons of a personal nature. If he is moved exclusively by economic considerations, he is an economic migrant and not a refugee.

63. The distinction between an economic migrant and a refugee is, however, sometimes blurred in the same way as the distinction between economic and political measures in an applicant's country of origin is not always clear. Behind economic measures affecting a person's livelihood there may be racial, religious or political aims or intentions directed against a particular group. Where economic

(g) 박해자

65. 박해는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와 관련된다. 박해는 또한 관련국의 법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일부 계층으로부터 생길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의 일부가 이웃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세속적 국가에서의 종교적 불관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종교적 불관용은 박해에 해당된다. 지역 주민이 심히 차별적이거나 다른 공격적인 행위를 하여도, 이들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고,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고,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한, 이들 행위는 박해로 간주된다.

measures destroy the economic existence of a particular section of the population (e.g. withdrawal of trading rights from, or discriminatory or excessive taxation of, a specific ethnic or religious group), the victims ma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become refugees on leaving the country.

64. Whether the same would apply to victims of general economic measures (i.e. those that are applied to the whole population without discrimination) would depend o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Objections to general economic measures are not by themselves good reasons for claiming refugee status. On the other hand, what appears at first sight to be primarily an economic motive for departure may in reality also involve a political element, and it may be the political opinions of the individual that expose him to serious consequences, rather than his objections to the economic measures themselves.

(g) Agents of persecution

65. Persecution is normally related to action by the authorities of a country. It may also emanate from sections of the population that do not respect the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laws of the country concerned. A case in point may be religious intolerance, amounting to persecution, in a country otherwise secular, but where sizeable fractions of the population do not respect the religious beliefs of their neighbours. Where serious discriminatory or other offensive acts are committed by the local populace, they can be considered as persecution if they are knowingly tolerated by the authorities, or if the authorities refuse, or prove unable,

(3)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a) 일반적 분석

66. 난민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신청인은 위와 같은 이유중 한가지 이유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를 입증하여야 한다. 박해가 이들 이유중 한가지 이유로 또는 2가지 이상의 복합된 이유로 발생된 것인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신청인 자신은 공포스러운 박해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한편 박해의 이유를 상세히 입증할 정도로 자신의 사안을 분석하는 것은 신청인의 의무가 아니다.

67. 심사관은 사안의 사실을 조사하면서, 공포스러운 박해의 이유를 확인하고, 또한 1951년 협약상의 난민정의를 이 사안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항목하에서 박해의 이유가 자주 중복된다. 예컨대 정치적 반대자가 종교적 또는 민족적 집단, 또는 양쪽 집단에 속하는 경우처럼, 통상적으로 1인과 결부된 1개 이상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당자가 그러한 이유들과 결부되는 것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 될 수 있다.

(b) 인종

68. 인종은, 본 편람의 문맥에서, 통상적으로 "인종"이라고 쓰여지는 모든 종류의 민족적 집단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주로 다수의 인구 내에 소수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공통가계로 이루어진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인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가장 현저한 인권침해의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비난받아왔다. 따라서 인종차별은 박해의 존재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to offer effective protection.

(3)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a) General analysis

66. In order to be considered a refugee, a person must show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for one of the reasons stated above. It is immaterial whether the persecution arises from any single one of these reasons or from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f them. Often the applicant himself may not be aware of the reasons for the persecution feared. It is not, however, his duty to analyze his case to such an extent as to identify the reasons in detail.

67. It is for the examiner, when investigating the facts of the case, to ascertain the reason or reasons for the persecution feared and to decide whether the definition in the 1951 Convention is met with in this respect. It is evident that the reasons for persecution under these various headings will frequently overlap. Usually there will be more than one element combined in one person, e.g. a political opponent who belongs to a religious or national group, or both, and the combination of such reasons in his person may be relevant in evaluating his well-founded fear.

(b) Race

68. Race, in the present connexion, has to be understood in its widest sense to include all kinds of ethnic groups that are referred to as "races" in common usage. Frequently it will also entail membership of a specific social group of common descent forming a minority within a larger

69.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은, 주로 1951년 협약상의 의미로 박해에 해당된다. 인종차별의 결과, 개인의 존엄성이 가장 기본적으로도 양도할 수 없는 인권과 합치되지 않는 정도로 영향을 받거나, 또는 인종적 장벽의 무시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이는 박해에 해당된다.

70. 단지 특정한 인종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난민지위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통상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그 집단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 구성원이 자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c) 종교

71.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를 변경할 자유, 또는 공적 혹은 사적으로, 교육, 신봉, 숭배 및 의식에 있어서 자신의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72.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는 다양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종교단체의 구성원 신분, 개인적 또는 공적 숭배, 또는 종교교육의 금지, 또는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거나 특정의 종교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중대한 차별조치를 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73. 단지 특정의 종교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지위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통상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그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population. Discrimination for reasons of race has found world-wide condemnation as one of the most strik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Racial discrimination, therefore, represents an important element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persecution.

69. Discrimination on racial grounds will frequently amount to persecution in the sense of the 1951 Convention. This will be the case if, as a result of racial discrimination, a person's human dignity is affected to such an extent as to be incompatible with the most elementary and inalienable human rights, or where the disregard of racial barriers is subject to serious consequences.

70. The mere fact of belonging to a certain racial group will normally not be enough to substantiate a claim to refugee status. There may, however, be situations where, due to particular circumstances affecting the group, such membership will in itself be sufficient ground to fear persecution.

(c) Religion

71.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venant proclaim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which right includes the freedom of a person to change his religion and his freedom to manifest it in public or private,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72. Persecution for "reasons of religion" may assume various forms, e.g. prohibition of membership of a religious community, of worship in private or in public, of religious instruction, or serious measures of discrimination imposed on persons

(d) 국 적

74. 이러한 문맥에서, "국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시민"으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족적 또는 언어적 집단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이고, 주로 "인종"이라는 용어와 중복되어 사용될 수 있다. 국적을 이유로 한 박해로는 (민족적, 언어적) 소수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와 조치를 들 수 있다. 일정한 경우 그러한 소수자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야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75. 한 국가 내에 2개 이상의 (민족적, 언어적) 소수집단이 공존하는 사실은 분쟁과 박해 상황, 또는 박해의 위협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민족집단간의 분쟁이 정치적 운동과 결합하는 경우, 특히 정치적 운동이 특정의 "국적"과 결부되는 경우, 국적을 이유로 한 박해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간의 구별은 그리 쉽지 않다.

76. 대부분의 경우 국적을 이유로 한 박해는 소수민족에 속하는 자에게 공포의 이유가 되는 반면, 여러 대륙에서는 다수자 집단에 속하는 자가 지배권을 가진 소수집단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 공포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because they practise their religion or belong to a particular religious community.

73. Mere membership of a particular religious community will normally not be enough to substantiate a claim to refugee status. There may, however, be special circumstances where mere membership can be a sufficient ground.

(d) Nationality

74. The term "nationality" in this context is not to be understood only as "citizenship". It refers also to membership of an ethnic or linguistic group and may occasionally overlap with the term "race". Persecution for reasons of nationality may consist of adverse attitudes and measures directed against a national (ethnic, linguistic) minority and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fact of belonging to such a minority may in itself give rise to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75. The co-existence within the boundaries of a State of two or more national (ethnic, linguistic) groups may create situations of conflict and also situations of persecution or danger of persecution. It may not always be easy to distinguish between persecution for reasons of nationality and persecution for reasons of political opinion when a conflict between national groups is combined with political movements, particularly where a political movement is identified with a specific "nationality".

76. Whereas in most cases persecution for reason of nationality is feared by persons belonging to a national minority,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various continents where a person belonging to a majority group may fear persecution by a dominant minority.

(e)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77. "특정사회집단"은 통상 유사한 배경, 습관,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로 구성된다. 이 항목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는 주장은, 주로 다른 이유 즉, 인종, 종교 또는 국적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는 주장과 중복될 수 있다

78. 그러한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은 박해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집단의 정부에 대한 충성은 신뢰할 수 없고, 또는 그 구성원의 정치적 전망, 경력 혹은 경제적 활동, 또는 그러한 사회집단의 존재 자체가 정부정책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되기 때문이다.

79.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이라는 사실만로는 통상 난민지위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그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e)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77. A "particular social group" normally comprises persons of similar background, habits or social status. A claim to fear of persecution under this heading may frequently overlap with a claim to fear of persecution on other grounds, i.e. race, religion or nationality.

78. Membership of such a particular social group may be at the root of persecution because there is no confidence in the group's loyalty to the Government or because the political outlook, antecedents or economic activity of its members, or the very existence of the social group as such, is held to be an obstacle to the Government's policies.

79. Mere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will not normally be enough to substantiate a claim to refugee status. There may, however, be special circumstances where mere membership can be a sufficient ground to fear persecution.

(f) 정치적 의견

80. 정부의 의견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지는 것 자체는 난민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고, 신청인은 자신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인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없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은 당국의 정책이나 방법을 비판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러한 의견이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거나 당국이 그러한 비판적 의견은 신청인에게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교사나 작가의 정치적 의견은 밖으로 노출이 적은 지위에 있는 자의 의견보다 더 명백할 수 있다. 신청인의 의견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또는 고집 또한 - 이것이 사안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입증될 수 있는 한 - 관련이 있다.

81. 협약상 난민정의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를 말하는데 대하여, 표현된 의견과 신청인이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거나 공포를 가지게 되는 관련조치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그러한 조치가, 분명 신청인의 "의견"에서 기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한 조치는 빈번히 정권에 대항한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행동의 근원이 된 정치적 의견을, 또한 그 의견이 공포로 주장되는 박해를 이끌었고 또는 박해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f) Political opinion

80. Holding political opinion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overnment is not in itself a ground for claiming refugee status, and an applicant must show that he has a fear of persecution for holding such opinions. This presupposes that the applicant holds opinions not tolerated by the authorities, which are critical of their policies or methods. It also presupposes that such opinions have come to the notice of the authorities or are attributed by them to the applicant. The political opinions of a teacher or writer may be more manifest than those of a person in a less exposed position. The relative importance or tenacity of the applicant's opinions--in so far as this can be established from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will also be relevant.

81. While the definition speaks of persecution "for reasons of political opinion" it may not always be possible to establish a causal link between the opinion expressed and the related measures suffered or feared by the applicant. Such measures have only rarely been based expressly on "opinion". More frequently, such measures take the form of sanctions for alleged criminal acts against the ruling power. It will, therefore,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applicant's political opinion, which is at the root of his behaviour, and the fact that it has led or may lead to the persecution that he claims to fear.

82. 앞서 말했듯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는, 그것이 이미 표현되었거나 또는 정부기관의 주목을 받게 된 의견을 신청인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청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강한 확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견을 조만간 표현하고,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당국과 충돌하게 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83.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은, 출신국을 떠나기 전에 출신국 당국이 그의 의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숨겨야 했고 어떠한 차별이나 박해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기를 거부하고 또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신청인이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 그가 박해의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출신국으로 돌아간다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직면하게 될 결과를 감정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현지에서 체재중에 난민이 된 자" (refugee sur place)의 경우에 적용된다.

84. 개인이 정치적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기소가 정치적 의견 때문에 행해지는 것인지 또는 정치적 동기로 말미암은 행동 때문에 행해지는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기소가 정치적 동기로 인하여 저질러진 가벌적 행위 때문에 행해지고, 예상되는 형벌이 관련국의 일반법에 합치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소에 대한 공포의 이유로는 신청인은 난민이 되지 않는다.

82. As indicated above, persecution "for reasons of political opinion" implies that an applicant holds an opinion that either has been expressed or has come to 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 There may, however, also be situations in which the applicant has not given any expression to his opinions. Due to the strength of his convictions, however, it may be reasonable to assume that his opinions will sooner or later find expression and that the applicant will, as a result, come into conflict with the authorities. Where this can reasonably be assumed, the applicant can be considered to have fear of persecution for reasons of political opinion.

83. An applicant claiming fear of persecution because of political opinion need not show that the authorities of his country of origin knew of his opinions before he left the country. He may have concealed his political opinion and never have suffered any discrimination or persecution. However, the mere fact of refus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his Government, or a refusal to return, may disclose the applicant's true state of mind and give rise to fear of persecution. In such circumstances the test of well-founded fear would be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consequences that an applicant having certain political dispositions would have to face if he returned. This applies particularly to the so-called refugee "sur place".¹⁰

84. Where a person is subject to prosecution or punishment for a political offence, a distinction may have to be drawn according to whether the prosecution is for political opinion or for

85. 정치범이 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범죄를 기소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범죄인에 대하여 그의 정치적 의견 또는 그러한 의견에 의한 표현을 처벌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정치범은 주장된 범죄에 대하여 가혹한 또는 자의적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가혹한 또는 자의적인 형벌은 박해에 해당된다.

86. 정치범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신청인의 인격, 정치적 의견, 범죄행위의 동기, 범죄행위의 성격, 기소의 성격과 그 동기, 끝으로 기소의 근거가 되는 법의 성격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소는, 해당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법의 범위 내에서의, 기소와 형벌에 대한 공포가 아닌 박해의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politically-motivated acts. If the prosecution pertains to a punishable act committed out of political motives, and if the anticipated punishment is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law of the country concerned, fear of such prosecution will not in itself make the applicant a refugee.

85. Whether a political offender can also be considered a refugee will depend upon various other factors. Prosecution for an offence may, depending upon the circumstances, be a pretext for punishing the offender for his political opinions or the expression thereof. Again, there may be reason to believe that a political offender would be exposed to excessive or arbitrary punishment for the alleged offence. Such excessive or arbitrary punishment will amount to persecution.

86. In determining whether a political offender can be considered a refugee, regard should also be had to the following elements: personality of the applicant, his political opinion, the motive behind the act, the nature of the act committed, the nature of the prosecution and its motives; finally, also, the nature of the law on which the prosecution is based. These elements may go to show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a fear of persecution and not merely a fear of prosecution and punishment--within the law--for an act committed by him.

(4) "국적국 밖에 있는"

(a) 일반적 분석

87. 본 편람의 문맥에서, "국적"은 "시민권"을 말한다.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이라는 문구는, 무국적자와는 구별되는 의미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관련된다. 대부분의 경우 난민은 출신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88.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은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 요건이다. 이 원칙에는 예외도 없다. 자기 본국의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자를 위해 국제적 보호가 행해질 수 없다.

89. 따라서 국적국과 관련한 박해의 공포를 주장하는 신청인은 실제로 그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국적 유무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는 특정 국적을 가졌거나 무국적자임을 자신이 모를 수 있고, 잘못 주장할 수 있다. 국적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그의 난민지위는, 무국적자의 경우와 유사하고, 국적국을 대신하여 종전의 상주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1조에서 105조 참조)

90.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신청인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는 국적국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가 국적국과 관련하여 공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다.

(4)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 General analysis

87. In this context, "nationality" refers to "citizenship". The phrase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relates to persons who have a nationality, as distinct from stateless persons. In the majority of cases, refugees retain the nationality of their country of origin.

88. It is a general requirement for refugee status that an applicant who has a nationality be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There are no exceptions to this rule. International protection cannot come into play as long as a person is within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his home country.¹¹

89. Where, therefore, an applicant alleges fear of persecution in relation to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it should be established that he does in fact possess the nationality of that country. There may, however, be uncertainty as to whether a person has a nationality. He may not know himself, or he may wrongly claim to have a particular nationality or to be stateless. Where his nationality cannot be clearly established, his refugee status should be determined in a similar manner to that of a stateless person, i.e. instead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will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See paragraphs 101 to 105 below.)

91. 박해를 받을 공포는 반드시 난민의 국적국의 전체 영역에까지 확대될 필요는 없다. 민족 분쟁 또는 내전상황을 포함한 중대한 소요의 경우, 특정의 인종적 또는 민족적 집단에 대한 박해는 그 국가의 일부 영역에서만 있을 수 있다. 단순히 같은 국가내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든 사정상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난민지위는 부정되지 않는다.

92.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에 관하여는 아래 제106조과 제107조에서 다루어진다.

93. 국적은 국가발급여권의 소지를 통하여 입증될 수 있다. 여권의 소지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한다. 즉 여권 자체가 달리 기재하고 있지 않는 한, 소지인은 발급국의 국민이다. 발급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여권의 소지인은, 그 발급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예컨대 그 여권이 소위 "편의여권"(passport of convenience)(국민이 아닌 자에게 국가기관이 발급해 주는 외관상 일반여권)임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편의여권이 단순히 여행목적의 편의상 발급되었다는 소지인에 주장은 국적의 추정을 반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일정한 경우 여권을 발급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얻을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진술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그의 주장의 신뢰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90. As mentioned above, an applicant's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must be in relation to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s long as he has no fear in relation to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he can be expected to avail himself of that country's protection. He is not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is therefore not a refugee.

91. The fear of being persecuted need not always extend to the whole territory of the refugee's country of nationality. Thus in ethnic clashes or in cases of grave disturbances involving civil war conditions, persecution of a specific ethnic or national group may occur in only one part of the country. In such situations, a person will not be excluded from refugee status merely because he could have sought refuge in another part of the same country, if under all the circumstances it would not have been reasonable to expect him to do so.

92. The situation of persons having more than one nationality is dealt with in paragraphs 106 and 107 below.

93. Nationality may be proved by the possession of a national passport. Possession of such a passport creates a prima facie presumption that the holder is a national of the country of issue, unless the passport itself states otherwise. A person holding a passport showing him to be a national of the issuing country, but who claims that he does not possess that country's nationality, must substantiate his claim, for example, by showing that the passport is a so-called "passport of convenience" (an apparently regular national passport that is sometimes issued by a national authority to non-nationals).

(b)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refugee "sur place")

94. 난민이 되기 위하여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는 요건은, 반드시 그가 국적국을 불법적으로 떠났어야 하고, 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그 국가를 떠났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이미 일정 기간동안 외국에 체재한 후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국을 떠날 때에는 난민이 아니었는데 이 후 난민이 된 자를 소위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라고 말한다.

95. 그가 출신국에 없는 동안 그 국가에서 발생한 상황 때문에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되는 자가 된다. 외교관과 해외에서 근무하는 여타 공무원, 전쟁포로, 학생, 이주민 노동자 및 기타는 해외에 체재하는 동안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을 하였고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96.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또는 거주국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 그는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행동이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정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행동이 출신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러한 행동이 당국에 의하여 어떻게 판단될지 유의하여야 한다.

to him as a matter of convenience for travel purposes only is not sufficient to rebut the presumption of nationality. In certain cases, it might be possible to obtain information from the authority that issued the passport. If such information cannot be obtained, or cannot be obtained within reasonable time, the examiner will have to decide on the credibility of the applicant's assertion in weighing all other elements of his story.

(b) Refugees "sur place"

94. The requirement that a person must be outside his country to be a refugee does not mean that he must necessarily have left that country illegally, or even that he must have left it on account of well-founded fear. He may have decided to ask for recognition of his refugee status after having already been abroad for some time. A person who was not a refugee when he left his country, but who becomes a refugee at a later date, is called a refugee "sur place".

95. A person becomes a refugee "sur place" due to circumstances arising in his country of origin during his absence. Diplomats and other officials serving abroad, prisoners of war, students, migrant workers and others have applied for refugee status during their residence abroad and have been recognized as refugees.

96. A person may become a refugee "sur place" as a result of his own actions, such as associating with refugees already recognized, or expressing his political views in his country of residence. Whether such actions are sufficient to justify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5)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그 국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97. 아래 (6)의 문구와는 달리, (5)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관련된다. 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난민은 항상 국적국의 보호를 향유할 수 없는 자이다.

98. 자신이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당해자의 의지와 관련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적국은 국민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보호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전쟁, 내전 또는 기타 중대한 소요사태가 있을 수 있다. 국적국의 보호가 신청인에 대하여 거부될 수 있다. 그러한 보호의 거부는 신청인의 박해의 공포를 확인하거나 보강시킬 수 있고, 실제로 박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

99. 보호의 거부를 성립시키는 것은 사안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에 대하여 통상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예컨대, 여권발급 거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의 거부, 또는 본국 영역으로의 입국거부) 보호를 거부하는 협약의 정의에 해당된다.

must be determined by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circumstances. Regard should be had in particular to whether such actions may have come to the notice of the authorities of the person's country of origin and how they are likely to be viewed by those authorities.

(5)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97. Unlike the phrase dealt with under (6) below, the present phrase relates to persons who have a nationality. Whether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his Government, a refugee is always a person who does not enjoy such protection.

98. Being unable to avail himself of such protection implies circumstances that are beyond the will of the person concerned. There may, for example, be a state of war, civil war or other grave disturbance, which prevents the country of nationality from extending protection or makes such protection ineffective. Protection by the country of nationality may also have been denied to the applicant. Such denial of protection may confirm or strengthen the applicant's fear of persecution, and may indeed be an element of persecution.

99. What constitutes a refusal of protection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f it appears that the applicant has been denied services (e.g., refusal of a national passport or extension of its validity, or denial of admittance to the home territory) normally accorded to his co-nationals, this may constitute a refusal of protection within the definition.

100. "원하지 아니하는"의 용어는, 국적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난민과 관련된다. 이 용어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라는 문구의 제한을 받는다. 난민이 본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의도는,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그 국가 밖에 있다는 주장과 통상 일치하지 않는다. 국적국의 보호가 언제든지 유용하고, 또한 그 보호를 거부하기 위하여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기초하여 거부할 이유가 없는 한, 당해자는 국제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난민이 아니다.

(6)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돌아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101. 이 문구는 무국적의 난민과 관계되는 것으로, 국적을 가진 난민에 관계되는 전술 문구와 내용이 유사하다. 무국적의 난민인 경우, "국적국"은 "종전의 상주국"의 표현으로, 또한 "...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의 표현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무국적의 난민의 경우, 종전의 상주국에 의한 "보호"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 일단 협약상 정의에 제시된 이유로 종전의 상주국을 포기하면, 무국적자는 통상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다.

100. The term unwilling refers to refugees who refuse to accept the protec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of their nationality.¹² It is qualified by the phrase "owing to such fear". Where a person is 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his home country, such willingness would normally be incompatible with a claim that he is outside that country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Whenever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nationality is available, and there is no ground based on well-founded fear for refusing it, the person concerned is not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is not a refugee.

(6)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101. This phrase, which relates to stateless refugees, is parallel to the preceding phrase, which concerns refugees who have a nationality. In the case of stateless refugees, the "country of nationality" is replaced by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nd the expression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is replaced by the words "unwilling to return to it". In the case of a stateless refugee, the question of "availment of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does not, of course, arise. Moreover, once a stateless person has abandoned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for the reasons indicated in the definition, he is usually unable to return.

102. 모든 무국적자가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들이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협약상의 난민정의에서 제시되는 이유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국적자는 난민이 아니다.

103. 그러한 이유는, 공포로 주장된 "종전의 상주국"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종전의 상주국"은 1951년 협약 초안자들에 의하여 "그가 거주하였던 곳으로서, 박해를 받았던 또는 그가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는 국가"라고 정의되고 있다.

104. 무국적자는 2개 이상의 종전의 상주국이 있을 수 있고, 이 중 1개 이상의 국가와 관련한 박해의 공포를 가질 수 있다. 협약상의 난민정의는 그가 모든 종전의 상주국들과 관련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

105. 일단 무국적자가 "종전의 상주국"과 관련하여 난민으로 인정되면, 이후 상주국의 변화는 그의 난민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2. It will be noted that not all stateless persons are refugees. they must be outside the country of their former habitual residence for the reasons indicated in the definition. Where these reasons do not exist, the stateless person is not a refugee.

103. Such reasons must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country of "former habitual residence" in regard to which fear is alleged. This was defined by the drafters of the 1951 Convention as "the country in which he had resided and where he had suffered or fears he would suffer persecution if he returned".¹³

104. A stateless person may have more than one country of former habitual residence, and he may have a fear of persecution in relation to more than one of them. The definition does not require that he satisfies the criteria in relation to all of them.

105. Once a stateless person has been determined a refugee in relation to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ny further change of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will not affect his refugee status.

(7) 이중국적 또는 다국적

1951년 협약 제1조 A (2)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 "국적국"의 용어는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의미하며, 또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없이 국적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06. 이 조항은, 자체 해석으로, 국적국들 중 적어도 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중국적자 또는 다국적자를 난민지위에서 배제할 의도로 마련한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호가 항상 가능한 경우, 국가의 보호는 국제적 보호보다 우선한다.

107. 이중국적 또는 다국적을 가진 신청인의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법적 의미의 국적보유와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간의 구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청인이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국적은 통상 국민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가 수반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 2국적의 보유는 난민지위와 모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여된 국적이 무효임을 입증하기 전에 그 국적에 따른 보호의 요청 또한 보호의 거부가 있어야 한다. 보호의 명확한 거부가 없는 경우라도, 합리적 기간 내에 응답이 없다면 보호의 거부로 볼 수 있다.

(7) Dual or multiple nationality

Article 1 A (2), paragraph 2, of the 1951 Convention:

"In the case of a person who has more than one nationality, the term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shall mean each of the countries of which he is a national, and a person shall not be deemed to be lacking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if, without any valid reason based on well-founded fear, he has not availed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one of the countries of which he is a national."

106. This clause, which is largely self-explanatory, is intended to exclude from refugee status all persons with dual or multiple nationality who can avail themselves of the protection of at least one of the countries of which they are nationals. Wherever available, national protection takes precedence over international protection.

107. In examining the case of an applicant with dual or multiple nationality, it is necessary, however, to distinguish between the possession of a nationality in the legal sense and the availability of protection by the country concerned. There will be cases where the applicant has the nationality of a country in regard to which he alleges no fear, but such nationality may be deemed to be ineffective as it does not entail the protection normally granted to nationals. In such circumstances, the possession of the second nationality would not be inconsistent with refugee status. As a rule, there should have been a request for, and a refusal of, protection before it can be established that a given nationality is ineffective. If there is no explicit

(8) 지리적 범위

108. 1951년 협약이 초안될 당시, 많은 국가들은 예견할 수 없는 범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요망이 있었다. 이런 요망으로 1951년이라는 기한이 삽입되었고,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언급하였다(제35조에서 제36조 참조). 일부 정부의 희망으로, 1951년 협약은 체약국에게 이 협약에 의한 의무를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난민이 된 자에만 한정시킬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109. 따라서 1951년 협약 제1조 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이 협약의 목적상, 제1조 A의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 (a)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b)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각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 두가지 의미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백히 하는 선언을 한다.

(2) (a)규정을 채택한 체약국은 (b)규정의 적용을 채택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110. 1951년 협약 당사국중, 본 편람 집필시 9개국이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a)를 선택하기를 고수하고 있다. 유럽 외의 지역에서 온 난민이 이러한 국가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경우, 그는 1951년 협약에 따른 난민지위를 통상 부여받을 수 없다.

refusal of protection, absence of a reply within reasonable time may be considered a refusal.

(8) Geographical scope

108. At the time when the 1951 Convention was drafted, there was a desire by a number of States not to assume obligations the extent of which could not be foreseen. This desire led to the inclusion of the 1951 dateline, to which reference has already been made (paragraphs 35 and 36 above). In response to the wish of certain Governments, the 1951 Convention also gave to Contracting States the possibility of limit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to persons who had become refugees as a result of events occurring in Europe.

109. Accordingly, Article 1 B of the 1951 Convention states tha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words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in Article 1, Section 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either

(a) "events occurring in Europe before 1 January 1951" or

(b) "events occurring in Europe and elsewhere before 1 January 1951"

and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make a declaration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specifying which of these meanings it applies for the purposes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2) Any Contracting State which has adopted alternative (a) may at any time extend its obligations by adopting alternative (b) by means of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제 3 장 적용정지조항

A. 일 반

111. 소위 "적용정지조항"(1951년 협약 제1조 C (1)에서 (6)까지)은 난민이 더 이상 난민이 되지 않는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적용정지조항은 국제적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국제적 보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112. 일단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그가 적용정지조항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난민지위가 유지된다. 난민지위인정에 대한 이같은 엄격한 접근은, 출신국 상황의(기본적인 성격의 변화가 있는 경우와는 구별되는) 일시적인 변화에 따라 난민의 지위가 재검토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113. 1951년 협약 제1조 C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제A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적용이 중지된다.

-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또는
-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또는
- (5)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제A항 제1호에 해당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0.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at the time of writing 9 still adhere to alternative (a), "events occurring in Europe".¹⁴ While refugees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frequently obtain asylum in some of these countries, they are not normally accorded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CHAPTER III – CESSATION CLAUSES

A. General

111. The so-called "cessation clauses" (Article 1 C (1) to (6) of the 1951 Convention) spell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refugee ceases to be a refugee. They are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international protection should not be granted where it is no longer necessary or justified.

112. Once a person's status as a refugee has been determined, it is maintained unless he comes within the terms of one of the cessation clauses.¹⁵ This strict approach towards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results from the need to provide refugees with the assurance that their status will not be subject to constant review in the light of temporary changes--not of a fundamental character--in the situation prevailing in their country of origin.

113. Article 1 C of the 1951 Convention provides tha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apply to any person falling under the terms of section A if:

- (1) He has voluntarily re-availed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or
- (2) Having lost his nationality, he has voluntarily re-acquired it; or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 사유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다만, 이 조항은 동조 제A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4. 6개의 적용정지조항중 처음 4개는 난민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난민에 관계된 상황 변화로, 즉:

-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 (2)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 (3) 새로운 국적의 취득
-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재정착한 경우이다.

115. 마지막 2개 적용정지조항인 (5)와 (6)은,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는 국가의 상황변화로 인하여 국제적 보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116. 적용정지조항은 부정적 성격의 조항으로 빠짐없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난민지위의 철회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추를 통하여 다른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이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 보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3) He has acquired a new nationality, and enjoys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ew nationality; or

(4) He has voluntarily re-established himself in the country which he left or outside which he remained owing to fear of persecution; or

(5) He can no longer, because the circumstances in connexion with which he has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have ceased to exist, continue to refuse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6) Being a person who has no nationality he is, because the circumstances in connexion with which he has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have ceased to exist, able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114. Of the six cessation clauses, the first four reflect a change in the situation of the refugee that has been brought about by himself, namely:

- (1) voluntary re-availment of national protection;
- (2) voluntary re-acquisition of nationality;
- (3) acquisition of a new nationality;
- (4) voluntary re-establishment in the country where persecution was feared.

115. The last two cessation clauses, (5) and (6), are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international protection is no longer justified on account of changes in the country where persecution was feared, because the reasons for a person becoming a refugee have ceased to exist.

117. 제1조 C는 난민지위의 취소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조항은 처음에 난민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진술을 통하여 난민지위를 취득하거나, 당해자가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알려진 관련사실에 의하면 적용배제조항이 난민에게 적용됨이 사후에 판명되는 경우, 통상 난민으로 인정된 결정은

B. 용어 해석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1951년 협약 제1조 C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118. 이 적용정지조항은 국적국 밖에 있는 국적을 가진 난민에게 관계된다. (실제로 자신의 국적국에 돌아간 난민의 경우는 4번째 적용정지조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는 그 국가에 자발적으로 재정착한 자이다.)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난민은 더 이상 국제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가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19. 이 적용정지조항은 3가지 요건을 수반한다.

(a) 자발성: 난민은 자발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b) 의도: 난민 자신의 행동은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으려는 의도로 취해진 것이어야 한다.

116. The cessation clauses are negative in character and are exhaustively enumerated. They should therefore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nd no other reasons may be adduced by way of analogy to justify the withdrawal of refugee status. Needless to say, if a refugee, for whatever reasons, no longer wishes to be considered a refugee, there will be no call for continuing to grant him refugee status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117. Article 1 C does not deal with the cancellation of refugee status. Circumstances may, however, come to light that indicate that a person should never have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in the first place; e.g. if it subsequently appears that refugee status was obtained by a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s, or that the person concerned possesses another nationality, or that one of the exclusion clauses would have applied to him had all the relevant facts been known. In such cases, the decision by which he was determined to be a refugee will normally be cancelled.

B. Interpretation of terms

(1) **Voluntary re-availment of national protection**

Article 1 C (1) of the 1951 Convention:

"He has voluntarily re-availed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118. This cessation clause refers to a refugee possessing a nationality who remain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The situation of a refugee who has actually returned to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is governed by the fourth cessation clause, which speaks of a person having "re-established" himself in that country.)

(c) 다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음: 난민은 실제로 그러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120. 난민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한, 난민지위는 정지되지 않는다. 예컨대 거주국의 당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의 영사관에 신청하는 것과 같이,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지시받는 경우라도, 단순히 그러한 지시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지위가 정지되지 않는다. 난민은 또한 자신의 통제를 뛰어 넘는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적국의 보호조치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본국에 이혼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의 이혼은 국제적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는 "자발적으로 다시 보호를 받는다" 것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 난민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121. 이러한 사정하에서, 난민지위의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보호를 다시 받는 것과 국가기관과의 임시적이고 우연한 접촉관계는 구별하여야 한다. 난민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이의 갱신을 신청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 국가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류를 취득하는 것은 국민 이외의 자도 마찬가지로 신청하게 되는 것으로서 - 예컨대 출생 및 혼인 증명서 취득 - 또는 유사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은 보호를 다시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

A refugee who has voluntarily re-availed himself of national protection is no longer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He has demonstrated that he is no longer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119. This cessation clause implies three requirements: (a) voluntariness: the refugee must act voluntarily; (b) intention: the refugee must intend by his action to re-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c) re-availment: the refugee must actually obtain such protection.

120. If the refugee does not act voluntarily, he will not cease to be a refugee. If he is instructed by an authority, e.g. of his country of residence, to perform against his will an act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a re-availment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such as applying to his Consulate for a national passport, he will not cease to be a refugee merely because he obeys such an instruction. He may also be constrained, by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to have recourse to a measure of protection from his country of nationality. He may, for instance, need to apply for a divorce in his home country because no other divorce may have the necessary international recognition. Such an act cannot be considered to be a "voluntary re-availment of protection" and will not deprive a person of refugee status.

122. 자신의 국적국 기관의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은, 그 요청이 실제로 인정되었을 경우 보호를 다시 받는 것이 된다.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의 가장 흔한 사례는 난민이 국적국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단지 본국귀환 신청을 함으로써 난민지위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귀환의 목적으로 입국허가 또는 여권을 취득하는 것은, 반증이 없는 한, 난민지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귀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 또한 UNHCR에 의하여 - 귀환자에게 부여되는 원조를 배제시키지는 않는다.

123. 난민은, 외국에 체류 중에 출신국의 보호를 받거나 또는 출신국에 돌아갈 의도로 자발적으로 여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증명서를 수령함으로써 통상 난민지위가 정지된다. 이 후 난민이 출신국의 보호를 받거나 출신국에 돌아갈 의사를 포기한다면, 그의 난민지위는 다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당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한 최초 난민으로 인정된 조건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124. 여권을 취득하고 또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는 것은, 일정한 예외적 상황에서, 난민지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제 120조 참조). 예컨대 여권의 소지인이 특별한 허가없이 국적국에 귀국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21. In determining whether refugee status is lost in these circumstances, a distinction should be drawn between actual re-availment of protection and occasional and incidental contacts with the national authorities. If a refugee applies for and obtains a national passport or its renewal, it will,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be presumed that he intends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On the other hand, the acquisition of documents from the national authorities, for which non-nationals would likewise have to apply--such as a birth or marriage certificate--or similar services, cannot be regarded as a re-availment of protection.

122. A refugee requesting protection from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has only "re-availed" himself of that protection when his request has actually been granted. The most frequent case of "re-availment of protection" will be where the refugee wishes to return to his country of nationality. He will not cease to be a refugee merely by applying for repatriation. On the other hand, obtaining an entry permit or a national passport for the purposes of returning will,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be considered as terminating refugee status.¹⁶ This does not, however, preclude assistance being given to the repatriant--also by UNHCR--in order to facilitate his return.

125. 난민이 여권을 가지고 않고, 예컨대 거주국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고국을 방문하는 경우, 그는 고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것이고, 따라서 적용정지조항에 의하여 난민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일부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안은 개별적 사안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고령이거나 병든 부모를 방문하는 것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또는 사업상 목적으로 본국을 통상 방문하는 것보다 난민의 본국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2) 자발적인 국적의 회의

1951년 협약 제1조 C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126. 이 조항은 전항과 유사하다. 이는,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국가의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난민이 자발적으로 그 국적을 회복한 경우이다.

127. 전항(제1조 C(1))에서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국적에 수반되는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난민지위가 정지되는 경우이고, 본항(제1조 C (2))에서는, 이전에 상실하였던 국적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난민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123. A refugee may have voluntarily obtained a national passport, intending either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his country of origin while staying outside that country, or to return to that country. As stated above, with the receipt of such a document he normally ceases to be a refugee. If he subsequently renounces either intention, his refugee status will need to be determined afresh. He will need to explain why he changed his mind, and to show that there has been no basic change in the conditions that originally made him a refugee.

124. Obtaining a national passport or an extension of its validity may, under certain exceptional conditions, not involve 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see paragraph 120 above). This could for example be the case where the holder of a national passport is not permitted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without specific permission.

125. Where a refugee visits his former home country not with a national passport but, for example, with a travel document issued by his country of residence, he has been considered by certain States to have re-availed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his former home country and to have lost his refugee status under the present cessation clause. Cases of this kind should, however, be judged on their individual merits. Visiting an old or sick parent will have a different bearing on the refugee's relation to his former home country than regular visits to that country spent on holidays or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business relations.

128. 국적회복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법의 적용 또는 포고에 의한 국적부여는, 그 국적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락된 것이 아닌 한, 자발적인 국적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종전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이유만으로는 난민지위가 정지되지 않는다. 즉,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행사되지 않는 경우 난민지위가 정지되지 않는다. 거부권의 인정을 전제로, 종전의 국적이 법의 적용을 통하여 부여된 경우, 난민이 그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발적인 회복으로 간주된다. 즉, 난민이 종전의 국적을 회복할 의사가 사실상 없음을 입증하는 특별한 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한 그러하다.

(2) Voluntary re-acquisition of nationality

Article 1 C (2) of the 1951 Convention:

“Having lost his nationality, he has voluntarily re-acquired it;”

126. This clause is similar to the preceding one. It applies to cases where a refugee, having lost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in respect of which he was recognized as having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voluntarily re-acquires such nationality.

127. While under the preceding clause (Article 1 C (1)) a person having a nationality ceases to be a refugee if he re-avails himself of the protection attaching to such nationality, under the present clause (Article 1 C (2)) he loses his refugee status by re-acquiring the nationality previously lost.¹⁷

128. The re-acquisition of nationality must be voluntary. The granting of nationality by operation of law or by decree does not imply voluntary reacquisition, unless the nationality has been expressly or impliedly accepted. A person does not cease to be a refugee merely because he could have reacquired his former nationality by option, unless this option has actually been exercised. If such former nationality is granted by operation of law, subject to an option to reject, it will be regarded as a voluntary re-acquisition if the refugee, with full knowledge, has not exercised this option; unless he is able to invoke special reasons showing that it was not in fact his intention to re-acquire his former nationality.

(3) 새로운 국적과 보호의 취득

1951년 협약 제1조 C (3)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경우"

129. 국적회복의 경우, 3번째 적용정지조항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국제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원칙에서 유래한다.

130. 난민이 취득한 국적은 통상적으로 그의 거주국의 국적이다. 한편, 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일정한 경우 타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새로운 국적이 관련국의 보호를 수반하는 한, 난민지위는 종료된다. 이러한 요건은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문구에서 비롯된다.

131.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난민지위가 정지된 자가, 새로운 국적국과 관련하여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주장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의 난민지위는 새로운 국적국과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132. 새로운 국적의 취득으로 인하여 난민지위를 상실한 자가 다시 새로운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그러한 상실의 사유에 따라서, 난민지위는 부활될 수 있다.

(3) Acquisition of a new nationality and protection

Article 1 C (3) of the 1951 Convention:

"He has acquired a new nationality and enjoys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ew nationality;"

129. As in the case of the re-acquisition of nationality, this third cessation clause derives from the principle that a person who enjoys national protection is not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130. The nationality that the refugee acquires is usually that of the country of his residence. A refugee living in one country may, however, in certain cases, acquire the nationality of another country. If he does so, his refugee status will also cease, provided that the new nationality also carries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concerned. This requirement results from the phrase "and enjoys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ew nationality".

131. If a person has ceased to be a refugee, having acquired a new nationality, and then claims well-founded fear in relation to the country of his new nationality, this creates a completely new situation and his status must be determined in relation to the country of his new nationality.

132. Where refugee status has terminated through the acquisition of a new nationality, and such new nationality has been los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such loss, refugee status may be revived.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는 국가에서의 자발적인 재정착

1951년 협약 제1조 C (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 때문에 거주하고 있던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133. 이 4번째 적용정지조항은 국적을 가진 난민과 무국적자인 난민 모두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출신국 또는 종전의 거주국에 돌아간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있는 동안 1번째 또는 2번째 적용정지조항하에서 사전에 난민지위가 정지되지 않은 난민에 관계된다.

134. 이 조항은 "자발적 재정착"을 말한다. 이는 그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국적국 또는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이해된다. 여권이 아닌, 예컨대 거주국에 의하여 발급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재정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본 조항에 의하여 난민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4) Voluntary re-establishment in the country where persecution was feared

Article 1 C (4) of the 1951 Convention:

"He has voluntarily re-established himself in the country which he left or outside which he remained owing to fear of persecution;"

133. This fourth cessation clause applies both to refugees who have a nationality and to stateless refugees. It relates to refugees who, having returned to their country of origin or previous residence, have not previously ceased to be refugees under the first or second cessation clauses while still in their country of refuge.

134. The clause refers to "voluntary re-establishment". This is to be understood as return to the country of nationality or former habitual residence with a view to permanently residing there. A temporary visit by a refugee to his former home country, not with a national passport but, for example, with a travel document issued by his country of residence, does not constitute "re-establishment" and will not involve loss of refugee status under the present clause.¹⁸

(5)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국적보유자

1951년 협약 제1조 C (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A (1)에 해당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35. "사유"는 국가 내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공포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 난민의 공포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의 단순한 변화 - 일시적인 변화 - 는 난민으로 인정된 근거가 된 사정의 중대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본 조항을 적용하기가 충분하지 않다. 난민지위는, 원칙적으로 국제적 보호가 제공하려 하는 안전성에 반할 정도로 빈번한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136. 본항 2번째 구절은, 1번째 구절에 규정된 적용정지조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극히 중대한 박해의 대상이 된 자가, 출신국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지위가 정지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다루고 있다. 제1조 A (1)은 예외가 "법정난민"에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1951년 협약이 검토될 당시, 난민의 대다수가 법정난민이었다. 한편, 예외는 보다 일반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고, 법정난민 이외의 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자신이 또는 가족이 잔혹한 형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자는 본국에 귀환되어서는 안된다. 본국의 체제의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이것이 항상 주민의 태도에 전

(5) Nationals whose reasons for becoming a refugee have ceased to exist

Article 1 C (5) of the 1951 Convention:

"He can no longer, because the circumstances in connexion with which he has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have ceased to exist, continue to refuse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Provided that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 refugee falling under section A (1) of this Article who is able to invoke compelling reasons arising out of previous persecution for refus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nationality;"

135. Circumstances" refer to fundamental changes in the country, which can be assumed to remove the basis of the fear of persecution. A mere--possibly transitory--change in the facts surrounding the individual refugee's fear, which does not entail such major changes of circumstances, is not sufficient to make this clause applicable. A refugee's status should not in principle be subject to frequent review to the detriment of his sense of security, which international protection is intended to provide.

136. The second paragraph of this clause contains an exception to the cessation provision contained in the first paragraph. It deals with the special situation where a person may have been subjected to very serious persecution in the past and will not therefore cease to be a refugee, even if fundamental changes have occurred in his country of origin. The reference to Article 1 A

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난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난민의 판단에는 완전한 변화가 아닐 수 있다.

(6)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무국적자

1951년 협약 제1조 C (6)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다만, 이 조항은 동조 제A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37. 6번째 적용정지조항의 마지막 항목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 관계되는 5번째 적용정지조항과 내용이 유사하고, 종전의 상주국에 돌아갈 수 있는 무국적자에만 관계되는 것이다.

138. "사유"란 5번째 적용정지조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된다.

139. 상주국의 사정이 변경된 것과는 달리, 당해자는 그곳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함이 강조된다. 무국적자의 경우는, 이것이 늘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1) indicates that the exception applies to "statutory refugees". At the time when the 1951 Convention was elaborated, these formed the majority of refugees. The exception, however, reflects a more general humanitarian principle, which could also be applied to refugees other than statutory refugees. It is frequently recognized that a person who--or whose family--has suffered under atrocious forms of persecution should not be expected to repatriate. Even though there may have been a change of regime in his country, this may not always produce a complete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 population, nor, in view of his past experiences, in the mind of the refugee.

(6) Stateless persons whose reasons for becoming a refugee have ceased to exist

Article 1 C (6) of the 1951 Convention:

"Being a person who has no nationality he is, because the circumstances in connexion with which he has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have ceased to exist, able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Provided that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 refugee falling under section A (1) of this Article who is able to invoke compelling reasons arising out of previous persecution for refusing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137. This sixth and last cessation clause is parallel to the fifth cessation clause, which concerns persons who have a nationality. The present clause deals exclusively with stateless persons who are able to return to the country of their former habitual residence.

제 4 장 적용배제조항

A. 일 반

140. 1951년 협약, 제1조 D, E, F는, 제1조 A에 의하여 난민성격을 가지는 자가 난민지위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자는 다음 3가지 집단에 속한다. 첫번째 집단(제1조 D)은 이미 국제연합의 보호 또는 원조를 제공받고 있는 자를 포함하고, 두번째 집단(제1조 E)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를 다루고, 세번째 집단(제1조 F)은 국제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범주를 열거한다.

141. 이들 조항에 의하여 적용배제의 사실은 통상 난민지위의 인정과정에서 나타난다. 한편, 적용배제를 정당화하는 사실은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만 판명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적용배제조항은 이미 내려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게 된다.

138. “Circumstances”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ame way as under the fifth cessation clause.

139. It should be stressed that, apart from the changed circumstances in his country of former habitual residence, the person concerned must be able to return there. This, in the case of a stateless person, may not always be possible.

CHAPTER IV – EXCLUSION CLAUSES

A. General

140. The 1951 Convention, in Sections D, E and F of Article 1, contains provisions whereby persons otherwise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refugees, as defined in Article 1, Section A, are excluded from refugee status. Such persons fall into three groups. The first group (Article 1 D) consists of persons already receiving United Nations protection or assistance; the second group (Article 1 E) deals with persons who are not considered to b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the third group (Article 1 F) enumerates the categories of persons who are not considered to be deserving of international protection.

141. Normally it will be during the process of determining a person's refugee status that the facts leading to exclusion under these clauses will emerge. It may, however, also happen that facts justifying exclusion will become known only after a person has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In such cases, the exclusion clause will call for a cancellation of the decision previously taken.

B. 용어 해석

(1) 이미 국제연합의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자
1951년 협약 제1조 D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외에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 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의 지위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 그러한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상의 이익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142. 이 조항에 의한 적용배제는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이외의 국제연합의 기관의 보호나 원조를 받고 있는 자에게 적용된다. 그러한 보호나 원조는 이전에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에 의하여 부여되었고, 현재는 국제연합 근동지역소재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143. 팔레스타인 난민에 관하여, UNRWA는 중동의 일정지역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만 보호나 원조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유의한다. 그 지역 이외에 있는 팔레스타인난민은 앞서 언급된 원조를 부여받을 수 없고, 1951년 협약의 기준에 따라 난민지위의 인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자의 난민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통상, 그 자에 대하여 원래 UNRWA의 보호나 원조를 부여할 자격이 있는 사정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그는 적용정

B. Interpretation of terms

(1) Persons already receiving United Nations protection or assistance

Article 1 D of the 1951 Convention: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ersons who are at present receiving from organs or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other than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rotection or assistance."

"When such protection or assistance has ceased for any reason, without the position of such persons being definitively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ese persons shall ipso facto b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142. Exclusion under this clause applies to any person who is in receipt of protection or assistance from organs or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other than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Such protection or assistance was previously given by the former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and is currently given by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There could be other similar situations in the future.

지조항하에서 난민자격이 정지되지 않거나, 적용배제조항하에서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1951년 협약 제1조 E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그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보유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44. 이 조항은, 난민지위에 해당하나, 그를 받아 들인 국가에서 정식 시민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나, 국민이 통상 향유하는 대부분의 권리를 인정받은 자들과 관계된다. (그들은 통상 "국내난민"(national refugee)이라고 한다.) 그들을 받아들인 국가는, 그 주민이 난민과 동일한 민족적 기원을 가지는 국가인 경우가 많다.

145. 이 조항에 의하여 적용배제사유를 구성하는 "권리 및 의무"의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난민의 지위가 통상 국민의 지위에 동화되는 경우, 적용배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난민은, 국민과 같이, 강제추방 또는 국외로 축출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46. 이 조항은, 당해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는 계속적인 거주를 의미하고 단순한 방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외 거주하면서 그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는 적용배제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43. With regard to refugees from Palestine, it will be noted that UNRWA operates only in certain areas of the Middle East, and it is only there that its protection or assistance are given. Thus, a refugee from Palestine who finds himself outside that area does not enjoy the assistance mentioned and may be considered for determination of his refugee status under the criteria of the 1951 Convention. It should normally be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the circumstances which originally made him qualify for protection or assistance from UNRWA still persist and that he has neither ceased to be a refugee under one of the cessation clauses nor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under one of the exclusion clauses.

(2) Persons not considered to b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Article 1 E of the 1951 Convention: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 i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in which he has taken residence as hav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are attached to the possession of the nationality of that country."

144. This provision relates to persons who might otherwise qualify for refugee status and who have been received in a country where they have been granted most of the rights normally enjoyed by nationals, but not formal citizenship. (They are frequently referred to as "national refugees".) The country that has received them is frequently one where the population is of the same ethnic origin as themselves.¹⁹

(3) 국제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1951년 협약 제1조 F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간주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문서에서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 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147. 다양한 난민범주를 정의하던 제2차 세계대전 전의 국제법문서는 범죄인 배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적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자를, 당시 원조를 받고 있던 대량의 난민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하여 처음으로 특별규정을 마련하였다.

145. There is no precise defini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that would constitute a reason for exclusion under this clause. It may, however, be said that the exclusion operates if a person's status is largely assimilated to that of a national of the country. In particular he must, like a national, be fully protected against deportation or expulsion.

146. The clause refers to a person who has "taken residence" in the country concerned. This implies continued residence and not a mere visit. A person who resides outside the country and does not enjoy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that country is not affected by the exclusion clause.

(3) Persons considered not to be deserving of international protection

Article 1 F of the 1951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with respect to whom there are serious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a) he has committed a crime against peace, a war crime, or a crime against humanity, as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drawn up to make provision in respect of such crimes;

(b) he has committed a serious non-political crime outside the country of refuge prior to his admission to that country as a refugee;

(c) he has been guilty of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147. The pre-war international instruments that defined various categories of refugees contained no provisions for the exclusion of criminals. It was immediately after the Second World War

148. 협약이 초안될 당시, 주요 전쟁범죄인의 재판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였고, 국가 측면에서 전쟁범죄인은 보호되어서는 안된다는 합의가 있었다. 또한 국가 측면에서 안보와 공공 질서에 위협한 존재가 되는 범죄인이 그 국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요망이 있었다.

149. 이들 적용배제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그 영역 내에서 신청인이 난민지위의 인정신청을 구하는 계약국에 속한다. 이들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본 규정에 언급된 행위가 저질러 졌다고 "고려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과거의 형사기소의 정식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해당자의 배제에 따르는 중대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이들 적용배제조항의 해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 전쟁범죄 등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문서에서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

150.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언급함에 있어서, 협약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문서"를 말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상당한 문서가 마련되었다. 모든 문서는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1945년 런던협정과 국제군사재판소 현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런던협정과 다른 부속문서에 포함된 정의는 부록V 및 부록VI에 게재된다.

that for the first time special provisions were drawn up to exclude from the large group of then assisted refugees certain persons who were deemed unworthy of international protection.

148. At the time when the Convention was drafted, the memory of the trials of major war criminals was still very much alive, and there was agreement on the part of States that war criminals should not be protected. There was also a desire on the part of States to deny admission to their territories of criminals who would present a danger to security and public order.

149. The competence to decide whether any of these exclusion clauses are applicable is incumbent upon the Contracting State in whose territory the applicant seeks recognition of his refugee status. For these clauses to apply, it is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there are "serious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one of the acts described has been committed. Formal proof of previous penal prosecution is not required. Considering the serious consequences of exclusion for the person concerned,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se exclusion clauses must be restrictive.

(a) War crimes, etc.

"(a) he has committed a crime against peace, a war crime or a crime against humanity, as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drawn up to make provision in respect of such crimes."

150. In mentioning crimes against peace, war crimes or crimes against humanity, the Convention refers generally to "international instruments drawn up to

(b) 보통범죄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151. 이 적용배제조항의 목적은, 난민수용국의 사회를 중대한 보통범죄를 범한 난민의 입국을 허가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또한 덜 심각한 성격의 보통범죄나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난민에게는 적절한 정의를 베풀 것을 추구하고 있다.

152. 범죄가 "비정치적" 또는 "정치적" 범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그 범죄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 예컨대 순수한 정치적 동기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단순히 개인적 이유나 이득의 목적에서 행해진 것인지 주의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저질러진 범죄와 주장된 정치적 목적 및 목표간에 밀접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범죄의 정치적 요소는 일반법상의 성격을 압도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저질러진 행위가 주장된 목적과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이 잔혹한 성격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정치적 성격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153.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신청인에 의하여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졌다고 추정되는 범죄만이 적용배제의 근거가 된다. 피난국 이외의 국가는 통상 출신국이 될 수 있으나, 신청인이 난민지위의 인정을 구하는 피난국 이외의 다른 제 3국이 될 수도 있다.

make provision in respect of such crimes". There are a considerable number of such instruments dating from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up to the present time. All of them contain definitions of what constitute "crimes against peac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most comprehensive definition will be found in the 1945 London Agreement and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The definitions contained in the above-mentioned London Agreement and a list of other pertinent instruments are given in Annexes V and VI.

(b) Common crimes

"(b) he has committed a serious non-political crime outside the country of refuge prior to his admission to that country as a refugee."

151. The aim of this exclusion clause is to protect the community of a receiving country from the danger of admitting a refugee who has committed a serious common crime. It also seeks to render due justice to a refugee who has committed a common crime (or crimes) of a less serious nature or has committed a political offence.

152. In determining whether an offence is "non-political" or is, on the contrary, a "political" crime, regard should be given in the first place to its nature and purpose i.e. whether it has been committed out of genuine political motives and not merely for personal reasons or gain. There should also be a close and direct causal link between the crime committed and its alleged political purpose and object. The political element of the offence should also outweigh its

154. 피난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난민은 그 국가의 적법절차에 구속된다. 예외적인 경우, 협약 제33조 제2항은, "특히 중대한" 보통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난국의 사회에 위협한 존재가 되는 난민을, 종전의 본국으로 추방 또는 귀환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55. 이 적용배제조항의 목적상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구성하는 것에 관하여, 특히 "범죄"라는 용어가 상이한 법제도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가 곤란하다. 특정 국가에서는 "범죄"의 용어는 중대한 성격의 범죄만을 의미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하찮은 절도에서 살인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현재 문맥에서, "중대한" 범죄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또는 상당히 중대한 가벌적 행위가 된다.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미한 범죄는 당해국의 형법에서 기술적으로는 "범죄"라고 언급되더라도 제2조 F (b)에 의한 적용배제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

156. 이 적용배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의 성격과 공포를 가지는 박해의 정도간에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대한 박해의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면, 그를 배제시키기 위하여는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우려되는 박해가 덜 심각한 것이라면, 신청인이 실제로 사법적 제재로부터 도망해 온 자인지, 또는 그의 범죄 성격이 진정한 난민으로서 성격을 능가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저질러졌다고 간주되는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common-law character. This would not be the case if the acts committed are grossly out of proportion to the alleged objective. The political nature of the offence is also more difficult to accept if it involves acts of an atrocious nature.

153. Only a crime committed or presumed to have been committed by an applicant "outside the country of refuge prior to his admission to that country as a refugee" is a ground for exclusion. The country outside would normally be the country of origin, but it could also be another country, except the country of refuge where the applicant seeks recognition of his refugee status.

154. A refugee committing a serious crime in the country of refuge is subject to due process of law in that country. In extreme cases,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permits a refugee's expulsion or return to his former home country if, having been convicted by a final judgement of a "particularly serious" common crime, he constitutes a danger to the community of his country of refuge.

155. What constitutes a "serious" non-political crime for the purposes of this exclusion clause is difficult to define, especially since the term "crime" has different connotations in different legal systems. In some countries the word "crime" denotes only offences of a serious character. In other countries it may comprise anything from petty larceny to murder. In the present context, however, a "serious" crime must be a capital crime or a very grave punishable act. Minor offences punishable by moderate sentences are not grounds for exclusion under Article 1 F (b) even if

157. 저질러졌다고 인정되는 범죄의 성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모든 관련 요소를 - 정상 참작의 요소를 포함하여 -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정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정, 예컨대 신청인이 이미 범죄경력에 있을 수 있는 사실에 주의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청인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형벌의 집행이 종료된 사실, 또는 사면이나 특사를 받은 사실도 관련 고려사항이 된다. 후자의 경우, 사면이나 특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범죄적 성격이 우세하면, 적용배제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58. 넓은 의미의 범죄가, 박해의 공포가 있는 국가로부터 탈출수단으로서 저질러지거나, 또는 탈출과 동시에 저질러진 경우에, 상술한 것과 유사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한 범죄는 교통수단의 절취로부터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적용배제조항의 목적상, 다른 탈출수단을 찾지 못한, 난민이 훔친 차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사실은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피난국으로 가기 위하여, 비행기를 납치하여, 즉 무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여 승무원에게 목적지를 변경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결정은 더욱 곤란해진다.

technically referred to as "crimes" in the penal law of the country concerned.

156. In applying this exclusion clause, it is also necessa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nature of the offence presumed to have been committed by the applicant and the degree of persecution feared. If a person has well-founded fear of very severe persecution, e.g. persecution endangering his life or freedom, a crime must be very grave in order to exclude him. If the persecution feared is less serious, it will be necessary to have regard to the nature of the crime or crimes presumed to have been committed in order to establish whether the applicant is not in reality a fugitive from justice or whether his criminal character does not outweigh his character as a bona fide refugee.

157. In evaluating the nature of the crime presumed to have been committed, all the relevant factors--including any mitigating circumstances--must be taken into account.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regard to any aggravating circumstances as, for example, the fact that the applicant may already have a criminal record. The fact that an applicant convicted of a serious non-political crime has already served his sentence or has been granted a pardon or has benefited from an amnesty is also relevant. In the latter case, there is a presumption that the exclusion clause is no longer applicable, unless it can be shown that, despite the pardon or amnesty, the applicant's criminal character still predominates.

159. 항공기납치에 관하여,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경우, 이것이 적용배제조항의 의미내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구성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각국 정부는 국제연합 기구내에서 수차례 항공기의 불법탈취문제를 검토하였고, 이에 관한 많은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들 중 어떤 문서도 난민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문제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이끈 한 보고서에서, "결의안 채택은 난민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범문서하에서의 국가의 국제법상 권리 또는 의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또 다른 보고서는, "결의안 채택은, 비호에 관한 국가의 국제법상 권리 또는 의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160.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다양한 협약은, 대부분 그러한 행위를 저질른 범죄인을 취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협약은 예외없이 체약국에게 그러한 자들을 관할국에 인도하거나 또는 자국 영역 내에서 그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라는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후자는 비호를 부여할 권리를 암시한다.

161. 비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한, 범죄인이 공포를 가지는 박해의 중대성과, 그러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정도가, 1951년 협약하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항공기의 불법납치를 한 신청인을 제1조 F (b)에 의하여 배제할 것 인지의 문제는, 각 개별사안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158. Considerations similar to those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will apply when a crime--in the widest sense--has been committed as a means of, or concomitant with, escape from the country where persecution was feared. Such crimes may range from the theft of a means of locomotion to endangering or taking the lives of innocent people. While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exclusion clause it may be possible to over-look the fact that a refugee, not finding any other means of escape, may have crashed the border in a stolen car, decisions will be more difficult where he has hijacked an aircraft, i.e. forced its crew, under threat of arms or with actual violence, to change destination in order to bring him to a country of refuge.

159. As regards hijacking, the question has arisen as to whether, if committed in order to escape from persecution, it constitutes a serious non-political crime within the meaning of the present exclusion clause. Governments have considered the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on several occas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a number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been adopted dealing with the subject. None of these instruments mentions refugees. However, one of the reports leading to the of States under instruments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Another report states that "the adoption of the draft Resolution cannot prejudice any international legal rights or duties of States with respect to asylum".²⁰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162. 이와 같이 일반적 표현의 적용배제조항은 제1조 F (a)의 적용배제조항과 중복됨을 알 수 있다. 즉,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제1조 F (c)는 특별한 새로운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a)와 (b)의 적용배제조항에 의하여 충분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서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표현하여 규정한 것이다. (a)와 (b)의 규정과 연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본 항에 해당되는 행위 역시 범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163.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은 국제연합 헌장 전문,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회원국 상호간 및 국제사회와 관련한 회원국의 행동을 규율하는 기본원칙을 열거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들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인은 회원국 내에서 권한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또한 개인은 국가가 이들 원칙을 위반한 것과 관계된 역할을 담당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된 선례가 기록된 바 없고, 이 조항의 일반적 성격 때문에 적용상 주의를 요한다.

160. The various conventions adopted in this connexion²¹ deal mainly with the manner in which the perpetrators of such acts have to be treated. They invariably give Contracting States the alternative of extraditing such persons or instituting penal proceedings for the act on their own territory, which implies the right to grant asylum.

161. While there is thus a possibility of granting asylum, the gravity of the persecution of which the offender may have been in fear, and the extent to which such fear is well-founded, will have to be duly considered in determining his possible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The question of the exclusion under Article 1 F (b) of an applicant who has committed an unlawful seizure of an aircraft will also have to be carefully examined in each individual case.

(c)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 he has been guilty of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162. It will be seen that this very generally-worded exclusion clause overlaps with the exclusion clause in Article 1 F (a) for it is evident that a crime against peace, a war crime or a crime against humanity is also an act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While Article 1 F (c) does not introduce any specific new element, it is intended to cover in a general way such acts against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that might not be fully covered by the two preceding exclusion clauses.

제 5 장 특 례

A. 전 쟁 난 민

164.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의 결과로 출신국을 강제로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자는, 통상 1951년 협약이나 1967년 의정서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한 자는, 다른 국제문서, 예컨대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에 추가된 1977년 의정서에 규정된 보호를 받는다.

165. 일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외국의 침략이나 점령은, 1951년 협약에서 열거하는 이유 중 1개 이상의 이유에 의한 박해가 될 수 있고, 박해가 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경우, 신청인이 점령지역에서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부, 신청인이 자신의 정부 또는 무력충돌이 있는 동안 그 국가의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런 보호가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난민의 지위가 인정된다.

166. 신청인의 접수국과 출신국간에 외교관계가 없다면 보호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인의 정부가 망명상태인 경우, 부여되는 보호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모든 사안은, 개별사안에 따라, 박해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와 출신국정부에 의한 보호의 실효성의 양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clause must also be of a criminal nature.

163.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e set out in the Preamble and Articles 1 and 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y enumerat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should govern the conduct of their members in relation to each other and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From this it could be inferred that an individual, in order to have committed an act contrary to these principles, must have been in a position of power in a member State and instrumental to his State's infringing these principles. However, there are hardly any precedents on record for the application of this clause, which, due to its very general character, should be applied with caution.

CHAPTER V – SPECIAL CASES

A. War refugees

164. Persons compelled to leave their country of origin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or national armed conflicts are not normally considered refugees under the 1951 Convention or 1967 Protocol.²² They do, however, have the protection provided for in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e.g.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on the Protection of War Victims and the 1977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²³

B. 탈영병과 병역기피자

167. 병역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병역이 의무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탈영은 예외없이 형사적 범죄로 간주된다. 탈영에 대한 형벌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통상 박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탈영이나 징병기피에 대한 기소와 형벌 그 자체는 협약상의 정의내의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아니다. 탈영이나 징병기피를 한 자는 난민 지위에서 배제되나, 또 다른 면에서는 탈영병이나 징병기피자인 난민이 될 수도 있다.

168. 탈영이나 징병기피의 유일한 이유가 병역을 혐오하거나 전투의 공포를 가지는 경우, 그는 분명 난민이 아니다. 그러나 탈영이나 징병기피가, 박해의 공포가 있는 국가를 떠나 국외에서 체류해야 하는 다른 관련된 동기에 따른 경우, 또는 그가 협약의 난민정의의 의미내에 속하는 박해를 받을 공포의 이유를 가지는 경우에는 난민이 될 수 있다.

169. 탈영병이나 징병기피자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군사범죄에 대한 부당하게 가혹한 형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위의 이유들과 탈영에 대한 처벌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박해의 공포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165. However, foreign invasion or occupation of all or part of a country can result--and occasionally has resulted--in persecution for one or more of the reasons enumerated in the 1951 Convention. In such cases, refugee status will depend upon whether the applicant is able to show that he has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in the occupied territory and, in addition, upon whether or not he is able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his government, or of a protecting power whose duty it is to safeguard the interests of his country during the armed conflict, and whether such protection can be considered to be effective.

166. Protection may not be available if there are no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applicant's host country and his country of origin. If the applicant's government is itself in exil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on that it is able to extend may be open to question. Thus, every case has to be judged on its merits, both in respect of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and of the availability of effective protection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of origin.

B. Deserters and persons avoiding military service

167. In countries where military service is compulsory, failure to perform this duty is frequently punishable by law. Moreover, whether military service is compulsory or not, desertion is invariably considered a criminal offence. The Penalties may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nd are not normally regarded as persecution.

170. 한편 병역이행의 강요가 난민지위를 주장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병역이행은 자신의 진정한 정치적, 종교적 혹은 도덕적 확신, 또는 정당한 양심상 이유에 반하여 군사행동에 참가를 요구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이다.

171. 그것이 진정한 것이더라도, 모든 확신이, 탈영이나 징병기피 이후 난민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특정한 군사행동에 대한 정치적 정당화에 관하여 정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면 자신이 참여함을 원하지 않는 종류의 군사행동이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기본행동양식의 기본적 규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 탈영이나 징병기피에 대한 형벌은 난민정의에 다른 요건에 비추어볼 때 그 자체로 박해로 간주될 수 있다.

172. 병역이행의 거부가 종교적 확신에 기초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인이, 자신의 종교적 확신이 진정한 것이고, 그러한 확신이 당해자에게 병역이행을 요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의하여 고려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면, 난민지위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은, 신청인이나 그의 가족이, 자신의 종교적 확신 때문에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부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난민지위의 주장이 뒷받침된다.

Fear of prosecution and punishment for desertion or draft-evasion does not in itself constitute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under the definition. Desertion or draft-evasion does not, on the other hand, exclude a person from being a refugee, and a person may be a refugee in addition to being a deserter or draft-evader.

168. A person is clearly not a refugee if his only reason for desertion or draft-evasion is his dislike of military service or fear of combat. He may, however, be a refugee if his desertion or evasion of military service is concomitant with other relevant motives for leaving or remaining outside his country, or if he otherwise has reasons, within the meaning of the definition, to fear persecution.

169. A deserter or draft-evader may also be considered a refugee if it can be shown that he would suffer disproportionately severe punishment for the military offence on account of his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The same would apply if it can be shown that he has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on these grounds above and beyond the punishment for desertion.

170. There are, however, also cases where the necessity to perform military service may be the sole ground for a claim to refugee status, i.e. when a person can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would have required his participation in military action contrary to his genuine political, religious or moral convictions, or to valid reasons of conscience.

173. 양심상의 이유에 인한 병역거부가 난민 지위의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이 분야의 최근 발전상황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점차 많은 국가가 진정한 양심상의 이유를 원용하는 자의 완전한 병역면제나, 병역을 대신하는 직무(예컨대 민간직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이나 행정규칙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한 입법이나 행정규칙의 도입은 또한 국제기관에 의한 권고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상황에 비추어, 진정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제약국에게 일임되어 있다.

174. 병역을 거부하기 위한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혹은 도덕적 확신, 또는 양심상 이유의 진실성 여부는, 당연히 그 자의 인격과 배경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입대요청을 받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는 자신의 확신 때문에 국가기관과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관련 고려사항이 된다. 강제적 병역이행이 되었는지 또는 자원자로서 입대를 하였는지 여부는, 또한 그의 확신의 진실성의 표시가 될 수 있다.

171. Not every conviction, genuine though it may be, will constitute a sufficient reason for claiming refugee status after desertion or draft-evasion. It is not enough for a person to be in disagreement with his government regarding the political justification for a particular military action. Where, however, the type of military action, with which an individual does not wish to be associated, is condemn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contrary to basic rules of human conduct, punishment for desertion or draft-evasion could, in the light of all other requirements of the definition, in itself be regarded as persecution.

172. Refusal to perform military service may also be based on religious convictions. If an applicant is able to show that his religious convictions are genuine, and that such convictions are not taken into account by the authorities of his country in requiring him to perform military service, he may be able to establish a claim to refugee status. Such a claim would, of course, be supported by any additional indications that the applicant or his family may have encountered difficulties due to their religious convictions.

173. The question as to whether objection to performing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can give rise to a valid claim to refugee statu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light of more recent developments in this field. An increasing number of States have introduced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ereby persons who can invoke genuine

C. 무력에 호소한 자 또는 폭력행위를 한 자

175. 난민지위의 신청이 무력을 사용하였거나 폭력행위를 한 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행위는, 많은 경우,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적 의견과 결부되거나 결부되었다고 주장된다. 이들 행위는, 개인적 활동의 결과일 수 있고, 또는 조직화된 집단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도 있다. 후자는 비밀집단이거나, 공식으로 승인되었거나 그 활동이 널리 알려진 정치적 군사조직일 수 있다. 무력사용은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이 있고, 경찰과 군대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무력에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176. 무력을 사용한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 자, 또는 그 성격과 전후상황에 관계없이 폭력행위를 한 자가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1951년 협약에 난민인정조항의 관점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제32조에서 제110조 참조).

177. 신청인이 당해조항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가 행한 무력사용이나 폭력행위가 적용배제조항의 1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1951년 협약 제1조 F (a)에서 (c)에 규정되는 적용배제조항은 이미 설명하였다. (제147조에서 제163조).

reasons of conscience ar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either entirely or subject to their performing alternative (i.e. civilian) service. The introduction of such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s also been the subject of recommendations by international agencies.²⁴ In the light of these developments, it would be open to Contracting States, to grant refugee status to persons who object to performing military service for genuine reasons of conscience.

174. The genuineness of a person's political, religious or moral convictions, or of his reasons of conscience for objecting to performing military service, will of course need to be established by a thorough investigation of his personality and background. The fact that he may have manifested his views prior to being called to arms, or that he may already have encountered difficulties with the authorities because of his convictions, are relevant considerations. Whether he has been drafted into compulsory service or joined the army as a volunteer may also be indicative of the genuineness of his convictions.

C. Persons having resorted to force or committed acts of violence

175.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are frequently made by persons who have used force or committed acts of violence. Such conduct is frequently associated with, or claimed to be associated with, political activities or political opinions. They may be the result of individual initiatives, or may have been committed within the framework of organized groups.

178. 제1조 F (a)의 적용배제조항은 원래 공적 자격으로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난민지위를 배제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적용배제조항은, 공식으로 승인된 조직, 비밀조직 또는 자치조직 여부를 불문하고, 다양한 비정부간 조직에 속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범죄를 저질은 자에게도 적용된다.

179. 제1조 F (b)의 적용배제조항은, "중대한 범죄"를 언급하고 있고, 이는 통상 공적 자격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폭력행위를 한 것과 관계가 없다. 적용배제조항의 해석은 이미 논의되었다. 제1조 F (c)의 적용배제조항 역시 고찰하였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 조항의 모호한 성격 때문에, 적용상의 주의를 요한다.

180. 적용배제조항의 모호한 성격과,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 자에게 이들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대한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적용배제조항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금 유의한다.

The latter may either be clandestine groupings or political cum military organizations that are officially recognized or whose activities are widely acknowledged.²⁵ Account should also be taken of the fact that the use of force is an aspect of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may--by definition--be lawfully resorted to by the police and armed forces in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176. An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by a person having (or presumed to have) used force, or to have committed acts of violence of whatever nature and within whatever context, must in the first place--like any other application--be examin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inclusion clauses in the 1951 Convention (paragraphs 32-110 above).

177. Where it has been determined that an applicant fulfils the inclusion criteria, the question may arise as to whether, in view of the acts involving the use of force or violence committed by him, he may not be covered by the terms of one or more of the exclusion clauses. These exclusion clauses, which figure in Article 1 F (a) to (c) of the 1951 Convention, have already been examined (paragraphs 147 to 163 above).

178. The exclusion clause in Article 1 F (a) was originally intended to exclude from refugee status any person in respect of whom there were serious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he has "committed a crime against peace, a war crime, or a crime against humanity" in an official capacity. This exclusion clause is, however, also applicable to persons who have committed such crimes within the framework of various non-governmental

제 6 장 가족결합의 원칙

181.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인권을 다루는 대부분 국제문서는 가족단위의 보호를 위한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82. 1951년 협약을 채택한 회의의 최종문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난민의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특히 가장이 특정 국가로의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난민의 가족결합은 유지되어야 함을 확보한다 .

(2) 미성년자인 난민, 특히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와 소녀를, 특히 후견과 입 양에 유의하며 보호한다.

183. 1951년 협약은 난민의 정의에 가족결합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된 전권회의의 최종문서의 권고는,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인 것에 관계없이 다수 국가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groupings, whether officially recognized, clandestine or self-styled.

179. The exclusion clause in Article 1 F (b), which refers to “a serious non-political crime”, is normally not relevant to the use of force or to acts of violence committed in an official capacity. The interpretation of this exclusion clause has already been discussed. The exclusion clause in Article 1 F (c) has also been considered. As previously indicated, because of its vague character, it should be applied with caution.

180. It will also be recalled that, due to their nature and the serious consequences of their application to a person in fear of persecution, the exclusion clauses should be applied in a restrictive manner.

CHAPTER VI –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181. Beginning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states that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most international instruments dealing with human rights contain similar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unit of a family.

182. The Final Act of the Conference that adopted the 1951 Convention:

“Recommends Governments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efugee's family, especially with a view to: (1) Ensuring that the unity of the refugee's family is maintained particularly in cases where the head of the family has fulfill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admission to a particular country.

제 2 부 난민지위 인정절차

A. 일 반

189.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는, 이들 문서의 목적상 누가 난민인가를 정의하고 있음을 보였다.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이들 조항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는, 누가 난민인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확인, 즉 난민지위의 결정은, 1951년 협약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제9조), 특별히 규정되고 있지 않다. 특히 협약은 난민지위의 인정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절차가 채택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해국의 특별한 헌법상 및 행정상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설정하도록 각 체약국의 선택에 맡겨 놓고 있다.

190.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통상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는 생소한 환경에 있으면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외국기관에 자신의 사안을 제출함에 있어 기술적 및 심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그의 신청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신청인의 각별한 어려움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있는 요원에 의하여, 특별히 정해진 절차 내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2) The protection of refugees who are minors, in particular unaccompanied children and girls, with special reference to guardianship and adoption.”²⁶

183. The 1951 Convention does not incorporate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in the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The above-mentioned Recommendation in the Final Act of the Conference is, however, observed by the majority of States, whether or not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or to the 1967 Protocol.

184. If the head of a family meets the criteria of the definition, his dependants are normally granted refugee statu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It is obvious, however, that formal refugee status should not be granted to a dependant if this is incompatible with his personal legal status. Thus, a dependant member of a refugee family may be a national of the country of asylum or of another country, and may enjoy that country's protection. To grant him refugee status in such circumstances would not be called for.

185. As to which family members may benefit from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the minimum requirement is the inclusion of the spouse and minor children. In practice, other dependants, such as aged parents of refugees, are normally considered if they are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On the other hand, if the head of the family is not a refugee, there is nothing to prevent any one of his dependants, if they can invoke reasons on their own account, from applying for recognition as refugees under the 1951 Convention or the 1967 Protocol.

191. 이 문제가 1951년 협약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이 채택한 절차는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많은 국가에서, 난민 지위는,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정식 절차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난민지위문제가 외국인의 입국에 대한 일반적 절차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한 난민지위가 비공식적인 조치에 의하여,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같은 특정목적에 위한 임시조치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가들도 있다.

192.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구속을 받는 국가가 동일한 절차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1977년 10월 제28차 회기에서, 고등판무관행동계획 집행위원회는, 이 절차가 일정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들 기본요건은, 상기 언급한 난민지위의 신청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또한 신청인이 일정한 기본적 보장을 제공받는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국경 또는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신청인이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받게 되는 권한있는 공무원(예컨대, 이민국 직원 또는 국경경찰관)은, 관련 국제법문서의 범위내에 속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루기 위한 명확한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 그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안은 상급기간에 회부되어야 한다.

(ii) 신청인은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operates in favour of dependants, and not against them.

186. The principle of the unity of the family does not only operate where all family members become refugees at the same time. It applies equally to cases where a family unit has been temporarily disrupted through the flight of one or more of its members.

187. Where the unity of a refugee's family is destroyed by divorce, separation or death, dependants who have been granted refugee status on the basis of family unity will retain such refugee status unless they fall within the terms of a cessation clause; or if they do not have reasons other than those of personal convenience for wishing to retain refugee status; or if they themselves no longer wish to be considered as refugees.

188. If the dependant of a refugee falls within the terms of one of the exclusion clauses, refugee status should be denied to him.

PART TWO - Procedures for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A. GENERAL

189. It has been seen that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define who is a refugee for the purposes of these instruments. It is obvious that, to enabl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to the Protocol to implement their provisions, refugees have to be identified. Such identification, i.e.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although mentioned in the 1951 Convention (cf. Article 9), is not specifically regulated.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does not indicate what type of procedures are to be adopted for the

(iii) 난민지위의 신청을 일차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지는 명확한 지정기관 - 가능한 한 단일의 중앙기관 - 이 있어야 한다.

(iv) 신청인은, 관계기관에 자신의 사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유능한 통역관의 조력을 받을 것을 포함한 필요한 편의를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UNHCR의 대표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러한 접촉의 기회가 있음을 적절히 통지받아야 한다

(v) 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사실이 그에게 통고되고, 난민지위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vi) 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관계국가의 행정기관이든 사법 기관이든 통상적 제도에 따라, 동일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이 결정의 공식적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vii) 신청인은, 상기 (iii)에 언급된 관할기관에 의하여 그의 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님이 입증되는 한,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상급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It is therefore left to each Contracting State to establish the procedure that it considers most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its particular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190. It should be recalled that an applicant for refugee status is normally in a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 He finds himself in an alien environment and may experience serious difficulties, technical and psychological, in submitting his case to the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often in a language not his own. His application should therefore be examined within the framework of specially established procedures by qualified personnel having the necessary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an understanding of an applicant's particular difficulties and needs.

191. Due to the fact that the matter is not specifically regulated by the 1951 Convention, procedures adopted by States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and to the 1967 Protocol vary considerably. In a number of countries, refugee status is determined under formal procedures specifical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In other countries, the question of refugee status is considered within the framework of general procedures for the admission of aliens. In yet other countries, refugee status is determined under informal arrangements, or ad hoc for specific purposes, such as the issuance of travel documents.

193. 집행위원회는 또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 중, 아직 절차를 설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 그러한 절차를 확립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그러한 절차에 적절한 형태로 UNHCR이 참가하는 것에 대한 호의적인 고려를 해 줄 희망을 표시하였다.

194. 난민지위의 결정은, 비호와 입국허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고등판무관이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등판무관의 관심사이다. 많은 국가에서,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다양한 형태로 난민지위의 인정절차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한 참가는, 체약국의 고등판무관 사무소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1951년 협약 제 35조와 1967년 의정서 제2조에 의한 것이다.

192. In view of this situation and of the unlikelihood that all States bound by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could establish identical procedures,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at its twenty-eighth session in October 1977, recommended that procedures should satisfy certain basic requirements. These basic requirements, which reflect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applicant for refugee status, to which reference has been made above, and which would ensure that the applicant is provided with certain essential guarantees, are the following:

- (i) The competent official (e.g., immigration officer or border police officer) to whom the applicant addresses himself at the border or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should have clear instructions for dealing with cases which might come within the purview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He should be required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to refer such cases to a higher authority.
- (ii) The applicant should receive the necessary guidance as to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 (iii) There should be a clearly identified authority—wherever possible a single central authority—with responsibility for examining requests for refugee status and taking a decision in the first instance.
- (iv) The applicant should be given the necessary facilities, including the services of a competent interpreter, for submitting his case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Applicants should also be given the opportunity, of which they should be duly informed, to contact a representative of

B. 사 실 확 정

(1) 원칙 및 방법

195. 개별사안에 관련된 사실은 일차적으로 신청자 자신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그 다음 증거의 진실성과 신청인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난민지위인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심사관)이다.

196. 신청을 제출한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종종 서류나 다른 증거로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신청인이 자신의 진술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 대부분의 경우, 박해를 피해 피난한 자는 거의 맨손으로 최소의 필수품조차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채 도착하고, 신분증명서도 갖지 못한 예가 많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는 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의무는 신청인과 심사관간에게 분담된다. 실제로, 일정한 사안에서, 심사관은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임의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독립적인 조사는 항상 성공적일 수 없고, 입증하지 못할 진술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주장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심사관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

UNHCR.

(v) If the applicant is recognized as a refugee, he should be informed accordingly and issued with documentation certifying his refugee status.

formal reconsideration of the decision, either to the same or to a different authority, whether administrative or judicial, according to the prevailing system.

(vii) The applicant should be permitted to remain in the country pending a decision on his initial request by the competent autho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iii) above, unless it has been established by that authority that his request is clearly abusive. He should also be permitted to remain in the country while an appeal to a higher administrative authority or to the courts is pending.²⁷

193. The Executive Committee also expressed the hope that all States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that had not yet done so would take appropriate steps to establish such procedures in the near future and give favourable consideration to UNHCR participation in such procedures in appropriate form.

194.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questions of asylum and admission, is of concern to the High Commissioner in the exercise of his function to provide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refugees. In a number of countries,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participates in various forms, in procedures for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Such participation is based on Article 35 of the 1951 Convention and the corresponding Article

197. 이와 같이, 증거의 요건은, 난민지위의 인정신청을 하는 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에 기인하는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엄격히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증거의 결여를 인정하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 진술이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적인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진실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8. 자신의 경력때문에 본국의 기관에 공포를 가지는 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도 공포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의 사안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199. 최초의 면접은 통상 신청인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으로 충분한 반면, 심사관은 다음 면접에서 명백히 모순된 설명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모순점을 해결하며, 허위진술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를 찾아내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인에 의한 진실과 다른 진술은 난민지위를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고, 그러한 진술을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아 평가하는 것은 심사관의 책임이다.

11 of the 1967 Protocol, which provide for co-operation by the Contracting States with the High Commissioner's Office.

B. ESTABLISHING THE FACTS

(1) Principles and methods

195. The relevant facts of the individual case will have to be furnished in the first place by the applicant himself. It will then be up to the person charged with determining his status (the examiner) to assess the validity of any evidence and the credibility of the applicant's statements.

196. It is a general legal principle that the burden of proof lies on the person submitting a claim. Often, however, an applicant may not be able to support his statements by documentary or other proof, and cases in which an applicant can provide evidence of all his statements will be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In most cases a person fleeing from persecution will have arrived with the barest necessities and very frequently even without personal documents. Thus, while the burden of proof in principle rests on the applicant, the duty to ascertain and evaluate all the relevant facts is shared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examiner. Indeed, in some cases, it may be for the examiner to use all the means at his disposal to produce the necessary evidence in support of the application. Even such independent research may not, however, always be successful and there may also be statements that are not susceptible of proof. In such cases, if the applicant's account appears credible, he should, unless there are good reasons to the

200. 사실확정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본 편람의 범위 밖의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보는, 일차적으로 표준설문서를 기재함으로써 주로 얻어진다. 기본적인 정보는, 통상, 심사관이 결정을 내리는데 자료로서 충분하지는 않고, 1회 이상의 개인적인 면접이 필요하다. 심사관은, 신청인이 그의 사안을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신청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신청인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신뢰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진술은 비밀로 다루어지고, 또한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알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201. 사실확정의 과정은 광범위한 사정이 확인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 전후 문맥으로부터 동떨어진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신청인의 경험의 누적적 효과는 반드시 고려해 넣어야 한다. 단독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 소규모의 사건은 "최후의 하찮은 사건"일 수 있다. 단독 사건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인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가 가지는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일 수 있다. (제53조 참조)

contrary, be given the benefit of the doubt.

197. The requirement of evidence should thus not be too strictly applied in view of the difficulty of proof inherent in the special situation in which an applicant for refugee status finds himself. Allowance for such possible lack of evidence does not, however, mean that unsupported statements must necessarily be accepted as true if they are inconsistent with the general account put forward by the applicant.

198. A person who, because of his experiences, was in fear of the authorities in his own country may still feel apprehensive vis-à-vis any authority. He may therefore be afraid to speak freely and give a full and accurate account of his case.

199. While an initial interview should normally suffice to bring an applicant's story to light, it may be necessary for the examiner to clarify any apparent inconsistencies and to resolve any contradictions in a further interview, and to find an explanation for any misrepresentation or concealment of material facts. Untrue statements by themselves are not a reason for refusal of refugee status and it is the examiner's responsibility to evaluate such statements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202. 당해사안의 사실에 대한 심사관의 결론과 신청인에 대한 그의 개인적 인상은 인간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심사관은 정의와 이해의 정신으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심사관의 결정은 신청인이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경우"일 수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영향을 당연히 받지 않아야 한다.

(2)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 부여

203. 신청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입증하는 진지한 노력을 한 후에도, 일부 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하였듯이(제196조), 난민이 자신의 사안의 모든 면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고, 실제로 이것이 요건이라면 난민의 대부분은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자에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유리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204. 한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난민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유용한 증거가 입수되어 검토되고, 또한 심사관이 신청인 일반적 신뢰성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납득할 만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된다.

200. An examination in depth of the different methods of fact-finding is outside the scope of the present Handbook. It may be mentioned, however, that basic information is frequently given, in the first instance, by completing a standard questionnaire. Such basic information will normally not be sufficient to enable the examiner to reach a decision, and one or more personal interviews will be required.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examiner to gain the confidence of the applicant in order to assist the latter in putting forward his case and in fully explaining his opinions and feelings. In creating such a climate of confidence it is, of course, of the utmost importance that the applicant's statements wi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and that he be so informed.

201. Very frequently the fact-finding process will not be complete until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has been ascertained. Taking isolated incidents out of context may be misleading. The cumulative effect of the applicant's experience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re no single incident stands out above the others, sometimes a small incident may be "the last straw" and although no single incident may be sufficient, all the incidents related by the applicant taken together, could make his fear "well-founded" (see paragraph 53 above).

202. Since the examiner's conclusion on the facts of the case and his personal impression of the applicant will lead to a decision that affects human lives, he must apply the criteria in a spirit of justice and understanding and his judgement should not, of course, be influenced by the

(3) 요약

205. 따라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신청인은,

(i) 자신의 사안의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실만을 말하고, 심사관을 충분히 도와야 한다.

(ii) 유용한 증거로 자신에 진술을 뒷받침하고 증거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를 얻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iii) 심사관이 관련 사실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자신과 과거 경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지위의 신청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일관성있게 설명하고, 또한 자신에게 제기되는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2) 심사관,

(i) 신청인이 가능한 한 충분히, 모든 유용한 증거를 가지고 그의 사안을 주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ii) 사안의 객관적 및 주관적 요소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신뢰성과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통한 이익 부여의) 증거를 평가한다.

(iii) 신청인의 난민지위에 관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이러한 객관적 및 주관적 요소를 1951년 협약의 관련기준에 결부시켜 판단한다.

personal consideration that the applicant may be an “undeserving case”.

(2) Benefit of the doubt

203. After the applicant has made a genuine effort to substantiate his story there may still be a lack of evidence for some of his statements. As explained above (paragraph 196), it is hardly possible for a refugee to “prove” every part of his case and, indeed, if this were a requirement the majority of refugees would not be recognized. It is therefore frequently necessary to give the applicant the benefit of the doubt.

204. The benefit of the doubt should, however, only be given when all available evidence has been obtained and checked and when the examiner is satisfied as to the applicant's general credibility. The applicant's statements must be coherent and plausible, and must not run counter to generally known facts.

(3) Summary

205. The process of ascertaining and evaluating the facts can therefore be summarized as follows:

(a) The applicant should:

(i) Tell the truth and assist the examiner to the full in establishing the facts of his case.

(ii) Make an effort to support his statements by any available evidence and give a satisfactory explanation for any lack of evidence. If necessary he must make an effort to procure additional evidence.

(iii) Supply all pertinent information concerning himself and his past experience in as much detail as is necessary to enable the examiner to

C. 사실확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안

(1) 정신장애인

206. 앞서 보았듯이 난민지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공포의 주관적인 요소와 공포의 충분한 근거의 객관적 요소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7. 심사관이 사안의 통상적 조사를 방해하는 정신적 또는 감정적 장애가 있는 신청인을 접할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가 난민일 수 있고, 그의 주장이 무시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 경우 다른 심사기술이 요구된다.

208. 그러한 경우, 심사관은 가능한 한 전문가의 의학상 자문을 얻어야 한다. 의학상의 보고는, 정신병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자신의 사안을 주장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신청인의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05조 (a) 참조). 의학상 보고의 결론에 따라 심사관의 사후 접근방식이 결정된다.

209. 접근방식은 신청인의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달라야 하고, 엄격한 규칙을 정할 수 없다. 신청인의 공포의 성격과 정도가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정신장애는 심한 박해에 놓여 있는 자에게서 빈번히 발견되기 때문이다. 신청인에 의하여 표현된 공포가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과장된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신청인이 행한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establish the relevant facts. He should be asked to give a coherent explanation of all the reasons invoked in support of his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nd he should answer any questions put to him.

(b) The examiner should:

(i) Ensure that the applicant presents his case as fully as possible and with all available evidence.

(ii) Assess the applicant's credibility and evaluate the evidence (if necessary giving the applicant the benefit of the doubt), in order to establish the objective and the subjective elements of the case.

(iii) Relate these elements to the relevant criteria of the 1951 Convention, in order to arrive at a correct conclusion as to the applicant's refugee status.

C. CASES GIVING RISE TO SPECIAL PROBLEMS IN ESTABLISHING THE FACTS

(1) Mentally disturbed persons

206. It has been seen that in determining refugee status the subjective element of fear and the objective element of its well-foundedness need to be established.

207. It frequently happens that an examiner is confronted with an applicant having mental or emotional disturbances that impede a normal examination of his case. A mentally disturbed person may, however, be a refugee, and while his claim cannot therefore be disregarded, it will call for different techniques of examination.

210. 여하튼 통상의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 일이 필요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는, 다른 곳, 예컨대, 친구, 친척 및 신청인과 가깝게 알고 지내는 자, 또는, 임명되었다면, 그의 후견인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주변상황 으로부터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신청인이 난민집단에 속하고 그 집단의 일행인 경우, 그 집단의 운명과 같이 하고, 그 집단의 다른 자와 동일한 난민에 해당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211. 따라서, 그러한 자의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에 "공포"의 주관적 요소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적 요소는 믿을 만하지 못하고, 객관적 상황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212. 상기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의 난민지위를 심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의 사안보다 더 많은 조사가 요구되고, 정보요소 이외의 다른 유용한 정보원을 사용하며, 신청인의 과거의 경력, 배경의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208. The examiner should, in such cases, whenever possible, obtain expert medical advice. The medical report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the nature and degree of mental illness and should assess the applicant's ability to fulfil the requirements normally expected of an applicant in presenting his case (see paragraph 205 (a) above). The conclusions of the medical report will determine the examiner's further approach.

209. This approach has to vary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applicant's affliction and no rigid rules can be laid down. The nature and degree of the applicant's "fear"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ince some degree of mental disturbance is frequently found in persons who have been exposed to severe persecution. Where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e fear expressed by the applicant may not be based on actual experience or may be an exaggerated fear, it may be necessary, in arriving at a decision, to lay greater emphasis on the objective circumstances, rather than on the statements made by the applicant.

210. It will, in any event, be necessary to lighten the burden of proof normally incumbent upon the applicant, and information that cannot easily be obtained from the applicant may have to be sought elsewhere, e.g. from friends, relatives and other persons closely acquainted with the applicant, or from his guardian, if one has been appointed. It may also be necessary to draw certain conclusions from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If, for instance, the applicant belongs to and is in the

(2)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

213. 1951년 협약에는, 나이 어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다.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난민의 정의가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미성년자의 난민지위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안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기준을 적용하는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부모 일방(혹은 쌍방) 또는 부양을 받는 다른 가족에 동반되는 경우, 부모나 다른 가족이 난민지위를 구하면, 미성년자인 난민의 지위는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제181조에서 제188조 참조).

214.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의 정신적 발달 및 성숙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동심리에 정통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어린이 - 이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 -는, 적절한 경우에, 그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임무를 가지는 후견인의 임명이 필요하다. 부모 또는 법적으로 임명되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기관은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미성년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company of a group of refugees, there is a presumption that he shares their fate and qualifies in the same manner as they do.

211. In examining his application, therefore, it may not be possible to attach the same importance as is normally attached to the subjective element of "fear", which may be less reliable, and it may be necessary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the objective situation.

212. In view of the above considerations, investigation into the refugee status of a mentally disturbed person will, as a rule, have to be more searching than in a "normal" case and will call for a close examination of the applicant's past history and background, using whatever outside sources of information may be available.

(2) Unaccompanied minors

213.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in the 1951 Convention regarding the refugee status of persons under age. The same definition of a refugee applies to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age. Whe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refugee status of a minor, problems may arise due to the difficulty of applying the criteria of "well-founded fear" in his case. If a minor is accompanied by one (or both) of his parents, or another family member on whom he is dependent, who requests refugee status, the minor's own refugee status wi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paragraphs 181 to 188 above).

215. 미성년자가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인 경우, 그 청소년의 실제 성숙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처럼 난민지위의 인정이 보다 용이하다. 반증이 없는 한, 16세 이상의 자는,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가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통상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공포와 자신의 의사를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성인의 경우처럼 동일한 중요성을 갖지 않을 수 있다.

216. 그러나, 이상의 것은 일반적 지침일 뿐이고, 미성년자의 정신적 성숙도는 통상 그의 개인적, 가족적 및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17.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경우, 일정한 객관적 요소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난민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는, 사정에 따라, 그 미성년자도 난민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218. 당해 미성년자의 출신국에 있는 부모와 다른 가족의 상황을 포함하여, 부모와 다른 가족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출신국 밖에 있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녀 자신은 그러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214. The question of whether an unaccompanied minor may qualify for refugee status must be determined in the first instan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his mental development and maturity. In the case of children, it will generally be necessary to enrol the services of experts conversant with child mentality. A child--and for that matter, an adolescent--not being legally independent should, if appropriate, have a guardian appointed whose task it would be to promote a decision that will be in the minor's best interests. In the absence of parents or of a legally appointed guardian, it is for the authorities to ensure that the interests of an applicant for refugee status who is a minor are fully safeguarded.

215. Where a minor is no longer a child but an adolescent, it will be easier to determine refugee status as in the case of an adult, although this again will depend upon the actual degree of the adolescent's maturity. It can be assumed that--in the absence of indications to the contrary--a person of 16 or over may be regarded as sufficiently mature to have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Minors under 16 years of age may normally be assumed not to be sufficiently mature. They may have fear and a will of their own, but these may not have the same significance as in the case of an adult.

216. It should, however, be stressed that these are only general guidelines and that a minor's mental maturity must normally be determined in the light of his personal, family and cultural background.

219. 부모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그러한 의사에 의문이 있거나, 또는 자녀의 의사와 충돌되는 경우, 심사관은, 그를 조력할 전문가와의 협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미성년자의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결정을 내리고, 이 경우,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부여(benefit of the doubt)의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17. Where the minor has not reached a sufficient degree of maturity to make it possible to establish well-founded fear in the same way as for an adult, it may be necessary to have greater regard to certain objective factors. Thus, if an unaccompanied minor finds himself in the company of a group of refugees, this may--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indicate that the minor is also a refugee.

218. The circumstances of the parents and other family members, including their situation in the minor's country of origin, will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f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parents wish their child to be outside the country of origin on grounds of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the child himself may be presumed to have such fear.

219. If the will of the parents cannot be ascertained or if such will is in doubt or in conflict with the will of the child, then the examiner, in cooperation with the experts assisting him, will have to come to a decision as to the well-foundedness of the minor's fear on the basis of all the known circumstances, which may call for a liberal application of the benefit of the doubt.

결론

220. 본 편람에서는,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지위를 인정하는데, UNHCR의 경험 중, 유용한 것으로 판명된 일정한 지침을 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 이들 두개 국제법문서에서 "난민"이란 용어의 정의와, 이들 정의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해석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이들 정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난민지위의 인정에 관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절차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221.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개인이 난민지위의 신청을 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이러한 성격의 본 편람에 내재된 부족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상황은 다양하고, 또한 출신국의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상이한 사정과 개별신청인에 관계된 특별한 개인적 요소에 의하여 상황이 달라진다.

222. 본 편람에 대한 이같은 설명은, 난민지위의 인정이 결코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작업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난민지위의 인정과정은, 특별한 지식, 훈련 및 경험이 요구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특별한 상황과 관계된 인간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23.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본 편람이 일상업무로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도록 요청받는 자에게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CONCLUSION

220. In the present Handbook an attempt has been made to define certain guidelines that, in the experience of UNHCR, have proved useful in determining refugee status for the purposes of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so doing, particular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efinitions of the term "refugee" in these two instruments, and to various problems of interpretation arising out of these definitions. It has also been sought to show how these definitions may be applied in concrete cases and to focus attention on various procedural problems arising in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221.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is fully aware of the shortcomings inherent in a Handbook of this nature, bearing in mind that it is not possible to encompass every situation in which a person may apply for refugee status. Such situations are manifold and depend upon the infinitely varied conditions prevailing in countries of origin and on the special personal factors relating to the individual applicant.

222. The explanations given have shown that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is by no means a mechanical and routine process. On the contrary, it calls for specialized knowledge, training and experience and--what is more important--an understanding of the particular situation of the applicant and of the human factors involved.

223. Within the above limits it is hoped that the present Handbook may provide some guidance to those who in their daily work are called upon to determine refugee status.